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 학위 논문

중국인 학습자의 남·북방 지역별
한국어 종성 발음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후 개 만

2023년 2월

중국인 학습자의 남·북방 지역별 한국어 종성 발음 비교 연구

指導教授 裴 泳 煥

侯 凱 燮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3년 2월

侯凱燮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2월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learners'
pronunciation of Korean final consonants by
region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Kai-Man Hou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 hwan Ba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Young-Hwan Bae, Prof. of Korean Language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연구	3
1.3. 연구 대상 및 방법	8
1.3.1 피실험자 대상	9
1.3.2 실험 목록 기준과 대상표	10
II. 이론적 배경	15
2.1. 대조 분석,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15
2.2. 중국어 남·북방 방언에 따른 종성 발음의 특징	22
2.2.1. 입성 보유 지역	25
2.2.2. 관화 사용하는 지역	26
2.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대조	27
III. 발화·청취 차원의 중국어 학습자 종성 발음 양상	29
3.1. 발화 실험 결과 및 해석	29
3.1.1 종성 발음 현황	29
3.1.2 [ㅂ] 종성	32
3.1.3 [ㄷ] 종성	36

3.1.4 [ㄱ] 종성	48
3.1.5 [ㅋ] 종성	52
3.1.6 [ㆁ] 종성	54
3.1.7 [ㅇ] 종성	55
3.1.8 [ㄹ] 종성	55
3.2. 청취 실험 결과 및 해석	58
3.2.1. 청취 실험 대상	58
3.2.2. 청취 실험 결과	58
3.3 발화와 청취 오류 유형 분석	60
V.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70
<부록>	73

<표 차례>

<표 1> 'ㅅ'의 발음	6
<표 2> 대상 단어표	13
<표 3> 실험자표	14
<표 4> 중국어 관화의 특징	23
<표 5> 중국어 남방 방언의 특징	23
<표 6> 7종성 발화 실험 정확도	30
<표 7> [ㅂ, ㄷ, ㄱ] 종성 발음 정확도(%)	32
<표 8> 발화와 청취 실험과 발음 실험 정확도 비교	61

<그림 차례>

<그림 1> 방언 분포도	24
<그림 2> 전체 실험자 발음 정확도	30
<그림 3> /ㅂ/종성 정확도	33
<그림 4> 남·북방 고급 /ㅂ/종성 정확도	33
<그림 5> 남·북방 중급 /ㅂ/종성 정확도	34
<그림 6> /ㅍ/종성 정확도	35
<그림 7> 남·북방 고급 /ㅍ/종성 정확도	36
<그림 8> 남·북방 중급 /ㅍ/종성 정확도	37
<그림 9> /ㄷ/종성 정확도	38
<그림 10> /ㅈ/종성 정확도	39
<그림 11> 남·북방 고급 /ㅈ/종성 정확도	40
<그림 12> 남·북방 중급 /ㅈ/종성 정확도	40
<그림 13> /ㅊ/종성 정확도	41
<그림 14> 남·북방 고급 /ㅊ/종성 정확도	42
<그림 15> 남·북방 중급 /ㅊ/종성 정확도	42
<그림 16> /ㅌ/종성 정확도	44
<그림 17> 남·북방 고급 /ㅌ/종성 정확도	44
<그림 18> 남·북방 중급 /ㅌ/종성 정확도	45
<그림 19> /ㅍ/종성 정확도	46
<그림 20> 남·북방 고급 /ㅍ/종성 정확도	47
<그림 21> 남·북방 중급 /ㅍ/종성 정확도	47

<그림 22> /ㄱ/종성 정확도	49
<그림 23> 남·북방 고급 /ㄱ/종성 정확도	49
<그림 24> 남·북방 중급 /ㄱ/종성 정확도	50
<그림 25> /표/종성 정확도	51
<그림 26> /ㅁ/종성 정확도	52
<그림 27> 남·북방 고급 /ㅁ/종성 정확도	53
<그림 28> 남·북방 중급 /ㅁ/종성 정확도	53
<그림 29> /ㄴ/종성 정확도	54
<그림 30> /ㅇ/종성 정확도	55
<그림 31> /ㄹ/종성 정확도	56
<그림 32> 남·북방 고급 /ㄹ/종성 정확도	57
<그림 33> 남·북방 중급 /ㄹ/종성 정확도	57
<그림 34> 남·북방 청취 실험 정확도	5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방언권에 따라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입성([p],[t],[k])의 발음이 존재하는 중국의 남방지역 학습자와 입성이 존재하지 않는 북방 지역 학습자 간의 한국어 종성 발음 양상에 모어의 방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ㅅ'은 한국어 발음은 [십], 중국어 보통화는 [shi], 남방 방언인 광둥어는 [sap], 민어는 [sip]으로 발음된다. 이들 발음을 들어 보면 민어와 한국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지만, 보통화와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매우 일찍 보통화 사용을 대중화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든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보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북방 학습자에게 방언과 보통화는 실제로 매우 유사하다. 반면 남방지역 학습자는 대부분 보통화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남방지역 학습자는 대부분 지역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방언은 모국어의 사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국어가 제2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 또한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남방과 북방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발화 차원과 청취 차원으로 나누어 실제 실험 조사를 통해 두 방언권 화자의 한국어 종성 오류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험 대상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국인 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중국인이다. 20명 피실험자 중 남방과 북방을 각각 10명씩 나누고, 지역별 10명의 학습자를 중급, 고급의 등급에 따라 각각 5명씩 구분하여 발했다. 중국인 학습자의 모어 방언권별 한국어 종성 발음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발화 차원과 청취 차원 두 가지 형식으로 발음을 추출하였다. 종성 발음 실험 조사를 위해 선정된 어휘는 한국어의 7종성,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다 포함한다. 단순한 단어 읽기를 통해서만 피실험자의 발음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워 실험 대상 단어를 선정한 후 이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를 분석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분석한 결과 남방 학습자가 북방 학습자보다 발음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대상 학습자들은 대체로 듣기에서는 정확도가 높았으나, 들은 내용을 발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았다. 발화 실험과 청취 실험 결과에 따라 나타난 오류 유형은 다음의 5가지다.

첫째, 누락 현상이다. 누락 현상의 경우 2종류가 나타났다. 하나는 종성의 대표 소리가 불확실하여 종성 누락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로 ‘ㅍ, ㅈ, ㅊ, ㅎ, ㅌ, ㄷ, ㅋ’ 등이 종성에 올 때 발생하였다. 이 자음들이 종성에 나타날 경우 실험자들은 종성에서의 대표 소리를 기억하지 못해 발음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종성 발음을 누락하는 현상이다. 주로 ‘ㅂ, ㄷ, ㄱ, ㅁ, ㄴ’ 종성에서 발생하였다. 또 하나는 학습자가 종성을 무의식적으로 누락시켜 발음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문장을 읽을 때는 종성을 누락시키지만,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정확히 발음하였다.

둘째는 종성을 알고 있음에도 평파열음화에 의한 대표소리를 잘못 대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ㅍ, ㅈ, ㅌ, ㄷ, ㅁ, ㅇ’ 등의 종성에서 나타났으며, 위의 현상과 달리 이 유형은 대표소리에 관한 잘못된 기억으로 발음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 매개 모음 첨가 현상이다. 주로 /ㅂ/, /ㅍ/, /ㅁ/, /ㄷ/종성에서 나온다. 즉, 단어의 종성을 빼내어 모음 ‘ㅣ, ㅡ, ㅏ’와 연결하고, 종성이 초성이 된 후에 실제 형태소 가진 어미나 조사 함께 발음한다.

넷째, 음운 규칙의 오용 현상이다. 학습자는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전혀 몰라 발음에서 실수를 한다.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ㅎ’와 ‘ㅌ’ 종성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에는 주로 듣기 실험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되짚다’, ‘비웃다’ 등의 단어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나타난 것이다.

I.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방언권에 따라 한국어의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국어를 방언권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어 종성의 입성¹⁾([p],[t],[k]) 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남방 지역 방언과 북방 지역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성 발음이 존재하는 남방 방언 화자와 입성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보통화를 사용하는 북방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종성의 입성 유무에 따라 한국어 종성 발음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 언어 습득에서의 언어 전이에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긍정적인 전이(positive transfer)는 모국어(native language)와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의 유사성이 목표언어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전이(negative transfer), 즉 모국어의 간섭은 ‘주로 학습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모국어와 목표언어의 일부 형태와 규칙 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을 말한다(Tang Chengxian, 1997).²⁾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응용 언어학자 찰스 프라이스(Charles Fries)와 로버트 라도(Robert Lado)는 ‘한 언어가 다른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 위해 언어연구에 ‘전이’³⁾라는 용어를 사용했다.⁴⁾

1) 입성: 입성 운미는 [-ŋ], [-ŋ], [-k] 세 가지 파열음으로 구성된다.

입성자의 발음은 짧고, 발음을 하자마자 정지된다. 입성음은 무성제조음(無聲除阻音)이다. 성조(成阻)와 지조(持阻) 단계이고 폭발이 없는 팔열음이다. (輔音(자음) 발음 과정은 성조, 지조와 제조 3단계에 구성한다. (바이두 도서관 语音学: 商务印书馆, 朱晓农, 2010)

-성조: 자음은 발음 과정에서 방해 효과의 형성

-지조: 자음은 발음 과정에서 방해 효과의 지속

-제조: 자음은 발음 과정에서 방해 효과의 제거

고대 중국어에 사용한 입성은 이제 중국 남방의 일부 방언에서만 보존되어 사용되며, 북방지역은 역사 발전과 보통화(普通话) 사용도 높음 등의 이유로 입성 발음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唐承贤. 差错分析述评[J]. 外语教学与研究, 1997, (2): 46-50.

3) language transfer, 언어 전이, 모국어 전이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 그들의 모국어와 모국어 사고는 타 언어 학습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그로 인해 제2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로 사고하는 현상은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제2 외국어 학습자가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처럼 제2 외국어 습득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국어 지식 체계의 풍부함과 완성도는 필연적으로 제2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소 모국어와 제2 외국어에 대한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두고, 학습에서 모국어와 제2 외국어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둔다면 제2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매우 일찍 보통화⁵⁾ 사용을 대중화하기⁶⁾ 시작했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든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보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⁷⁾ 중국 북방 학습자에게 있어서 지역 방언과 보통화는 실제로 매우 유사하여 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남방지역 학습자는 대부분 보통화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남방지역 출신들은 공적인 생활을 제외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보통화보다 방언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남방의 방언은 보통화와 전혀 다르고, 많은 남방 방언은 여전히 고대 발음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 입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방언은 모국어의 사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국어가 제2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 또한 내릴 수 있다. 방언을 발음하는 방식은 모국어를 발음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방언을 사용하는 남방 학습자와 보통화를 사용하는 북방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방의 방언은 입성([p],[t],[k])이 존재한다. 남방 방언의 입성 발음과 한국어의 종성 소리인 ([ㅂ],[ㄷ],[ㄱ])의 발음은 비슷하다. 최근 북방에서

4) Schmidt, Richard,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M], 1992.

5) 본고에서 '보통화'란 표준 중국어를 의미한다.

6) 国务院. 关于推广普通话的指示[J]. C]. 北京: 科学出版社, 1956.

7) 바이두 도서관: 教育部: 我国普通话普及率达80.72%.

사용하는 보통화에서는 입성 발음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북방지역 학습자는 학습정에서 입성자가 없는 보통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방 학습자는 입성자가 남아 있는 방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모어 방언에 입성을 가진 남방 방언 학습자와 입성을 가지지 않은 북방 방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고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방 방언 화자와 남방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하고 인식하는 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발화 차원과 청취 차원으로 나누어 실제 실험 조사를 통해 두 방언권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차이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학적으로 제2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의 간섭이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종성을 발음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중국어 방언이 한국어 습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양상은 크게 중국인 한국어 종성 발음에 관한 연구와 중국어 방언 발음과 한국어에 관한 연구의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종성 발음에 관한 연구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단어가 대부분이다. 현대 중국어(보통화)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n]과 [ng] 두 가지만 있다. 한국어의 7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할 때 종성 부분에서의 오류가 많고 심지어 발화할 때 누락되기도 한다. 김지혜(200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초, 중, 고급에 조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오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음절 종성에 중국어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자음으로 인한 오류가 많다는 결과를 확

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백소영(2008)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음운론의 차이뿐만 아니라 발음 습관에 따른 조음 기관과 발음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는 중국어의 특징에 기인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 발음 학습은 초급 단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 교육은 초급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중 학습이 필요한 것은 초급 단계뿐만 아니라 중급 및 고급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종성 발음 오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을 숙달도별로 측정하여 한국어 종성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음소로 무엇이 있는지 밝혔다.

권성미(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어와 목표어의 상이성 정도에 따른 한국어의 비음 발음을 살폈고 그 결과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어 비음 습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진석(2013)에서는 숙달도와 단계별 특성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음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 발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음운현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초롱, 김태경(2014)에서는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성 발음 실현 양상을 밝혔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종성 발음의 오류율은 ‘ㄷ>ㄱ>ㄴ>ㄹ>ㄷ>ㅇ>ㅂ’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송봉영(2014)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상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음절 말에 오는 폐쇄음을 매우 어렵게 느끼면서 발음할 때 폐쇄음을 탈락시키는 오류를 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7 종성 학습을 위한 종성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경·백경미(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단계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 기간이 3년 이상인 고급 학습자들에게서도 음운 규칙의 미습득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났다.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교육이 초급 단계일 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징(2015)은 한국어는 음운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반면,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음운 변동이 적으며, 중국어 초급 학습자는 음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종성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종성 /ㄱ, ㄷ, ㅂ/의 발음을 교정할 때 관련된 음운현상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⁸⁾

백경미(2018)에서는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관찰하여 음운 환경에 따라 어떤 유형의 대치가 나타나는지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어말 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사 결과 어말 종성에서의 대치는 주로 조음위치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어말 종성에서 보여 준 자음 대치 오류 사례는 단 네 개로 오류가 있다.

김경희(2019)에서는 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조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종성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누락, 대치, 첨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조사나 형태소와 같은 인접한 상황을 고려한 어휘와 통으로 묶어서 발음 교육해야 한다. 용언은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형의 발음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제안했다.

배영환·김성란(2019)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한국어의 발음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어를 배운 지 5년 정도 된 고급 학습자(한국어 숙달도 6급)를 면담 조사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종성 발음의 오류는 '누락', '대치', '첨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리엔엔(2020)에서는 산출 실험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보여주는 한국어 GVC(이중모음+종성비음) 연쇄 음절의 오류 양상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방언의 발음에 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중국 남방 방언은 고대 중국어의 발음과 비슷하다. 중세의 고대 중국어에는 입성이 있었고 입성의 발음은 짧았다. 그러나 입성 발음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8) 장징(2015),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정 방안 연구 -종성 /ㄱ, ㄷ, ㅂ/을 중심으로', p.99.

<표 1> '十'의 발음

언어	'十'의 발음
한국어	십
보통화	[shi]
광둥어	[sap]
민어	[sip]

위에 표를 보면, '十'은 한국어로는 '十(십)', 보통화로 'shi', 광둥어로 'sap', 민어로 'sip'으로 발음된다. 처음 이 발음을 들어 보면 민어랑 한국어의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 중국 남방 방언에서는 지금까지 입성이 보존된 것을 알 수 있다.

배제석(1998)은 송대 각 지역의 入聲字들의 用韻 현상을 통해 현재 북방음에 나타나는 입성 운미의 소멸 현상을 설명하였다. 연구를 통해 宋代 이미 입성의 소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입성 운미의 소멸 과정을 보면 '-p, -t, -k' 3가지의 입성 운미가 소리를 축급하게 맺는 소리roman 인식되어 하나의 입성 운미로 일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⁹⁾.

이장희(2005)는 고구려 지명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漢語의 입성 운미[-tʰ]가 한국 한자음에서 유음으로 반영된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변화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구려 지명에는 이미 [-tʰ] 입성자의 대부분이 유음으로 독음되어, '을'이 유음 표기의 차자로 인식될 만큼 [-tʰ]>[-r]는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¹⁰⁾.

란효하(蘭曉霞 2007)는 처음으로 방언권에 따른 한국어 종성 발음 양상에 관해 연구하였다. 중국 표준어와 6대 방언의 운미를 한국어 종성이랑 대조실험으로 중국인 학습자 실제 종성 발음 오류를 찾고 방언권에 따라 종성 발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9) 배제석(1998), '입성자의(入聲字) 운미(韻尾) -p, -t, -k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38권, 한국중국학회.

10) 이장희(2005), '한자음 설내 입성 운미의 유음화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제32집, 언어과학회, 인용.

신아사(2009)는 老乞大 언해본의 左側음에서 입성자 운미[종성]의 표기가 'ㅎ' 과 '빙'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빙'은 문언 음가 가운데 이 합류하기 전인 12세기 초 이전 大都[북경]의 구음을 반영하며, 방언의 차이와 신구음의 중첩 양자 모두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¹¹⁾.

吳紘(2009)은 중국 산둥방언권, 민방언권, 북경방언권에서의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의 학습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발음 양상을 연구하였다. 먼저 민방언, 산둥방언, 북경방언과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을 찾아서 방언권 화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예측하였고, 실험으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소원군(邵遠琚 2010)은 제2 언어 발음을 학습할 때 방언으로 인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화방언, 월방언, 오방언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각 방언권별로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 개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란효하(2012)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차이가 있고 중국어 북방 방언에서 대부분 [n]와 [ŋ]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그러한 모국어의 간섭으로 한국어의 /ㄴ/ 과 /ㅇ/ 을 혼동하여 발음한다고 지적하였다.

고비(2012)는 중국 청도 방언의 성모(자음)와 운모(모음)를 한국어의 초성, 중성, 종성과 대조하고 오류 가설을 세웠다. 청도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오류 발생한 원인을 밝혔다.

왕민(2013)은 한중 입성 자음의 분포를 기술했다. 중국 40개의 지역과 한국을 포함한 총 41개의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입성 운미 '-p, -t, -k'와 양성 운미 '-m, -n, -g'가 중국과 한반도에 걸쳐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했는지를 언어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황수영(2016)에서는 월방언권 출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종성에 대한 발음 양상을 조사하였다. 숙달도에 따라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들보다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월방언의 발음

11) 신아사(2009), 『老乞大』 諺解本 중의 中古 入聲字 韻尾 '빙'에 대하여, 『중국어학연구』, 50, 중국학연구회.

습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한국어 종성‘ㄹ’과 대응될 수 있는 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하는 오류와 ‘ㄹ’을 탈락해서 발음하는 오류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방예(2018)에서는 중국 남·북방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종성을 발음할 때 학습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남방 학습자들은 북방 학습자들보다 비음 종성을 발음할 때 오류를 더 많이 범하고 오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남·북방 학습자들이 학습 환경에 따른 발음 오류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음 종성의 발음 오류는 학습자 개인의 연습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장월(2020)은 중국의 월방언과 오방언권 출신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종성을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단어 사용 빈도> 학습자의 학습 수준> 모국어간섭’ 등의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포오일나(2022)는 모어가 표준 중국어와 민남어로 서로 차이가 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종성에 대한 지각 실험과 산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표준 중국어 화자는 불파현상에 익숙하지 않아 편의상 조음위치에 가까운 음을 찾아서 조음하거나 받침을 탈락시켜서 조음하는 경향이 더 일반적인 반면, 민남어 화자는 조음 방식이 유사한 음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어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성 있는 남방 방언 학습자와 입성이 없는 보통화 학습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입성 유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남·북 지역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발음 교육 방안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음 실험 조사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중국의 남방과 북방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한국어 발음을 실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국어 북방(보통화) 학습자들의 종성 발음 학습의 초점은 종성의 존재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국어 남방 방언에는 고유한 입성 발음은 한국어 입성과 비슷하긴 해도 똑같지는 않다. 따라서 중국의 남방 방언의 사용 학습자들에게는 종성 발음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1.3.1. 피험자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중국의 북방 방언과 남방 방언으로 나누어 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등급(TOPIK)과 체류기간도 분류 항목에 포함된다(단, 남녀 성별 조건은 참고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실험 대상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국인 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중국인이다.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TOPIC)의 중급, 고급 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10명의 학습자를 선발했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는 발음을 익히는 과정으로 이번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기 어려워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초보 학습자의 경우 아직 한국어를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발화하는 학습자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20명 피실험자는 10명의 학습자를 중급, 고급의 등급에 따라 각각 5명의 북방 학습자와 5명의 남방 학습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북방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방언이 아닌 보통화를 사용하는 화자를 최대한 선택하였고, 남방 학습자들의 경우 보통화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즉 입성 발음을 사용하는 화자를 선택하여 서로 대비가 되도록 하였다.

한국어 능력이 중급 및 고급 등급의 학습자는 대체로 현재 한국어의 발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삼

지 않았으므로 성별에 다른 분류는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피험자의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어 학습 기간은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단어 읽기를 통해서만 피실험자가 발음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워 대상 단어를 선정한 후 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과 오류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2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3.2. 실험 목록 기준과 대상

실험방법은 발화와 청취 두 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 번째는 제공된 내용을 두 번씩 읽고, 녹음기로 실제 발음을 녹음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듣기를 사용한 실험이다. 준비된 녹음을 재생하고, 녹음 내용을 들은 것과 정확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녹음을 두 번씩 들려주고, 최대 세 번까지 재생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 단어로 문장으로 만들어 구성되어 있다. 대상 단어는 1음절, 2음절, 다중음절로 나눈다. 단어 선택은 고유어와 한자를 포함하며, 용언과 체언으로 분류된다. 문장 유형은 긴 문장과 짧은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모어 방언권별 한국어 종성 발음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발화 차원과 청취 차원의 한국어 단어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 단어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1) 대상 단어 선정 기준

- ① 어종 구별: 고유어, 한자어
- ② 품사 제약: 명사(체언) 동사, 형용사(용언);
- ③ 종성 종류: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④ 음절 수: 단음절과 다음절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단어를 선정하되 구체적인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부분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먼저 추출하였다. 가령, ‘잡다’라는 실험 대상 단어가 있다면, 첫째, 고유어, 둘째, 용언, 셋째, 종성 /ㅂ/, 넷째, 음절 수. 이상의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단어들 중에서 앞에 나온 단어를 선정하였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본 실험의 방향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실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험 대상인 일부 한국어 학습자들은 음운 변화 현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음운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어휘의 경우 선택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종성 발음이 가능한 단어만 조사하였다. 종성 발음 조사를 위해 선정된 어휘는 한국어의 7종성,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다 포함한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가 제2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단어 선정에서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 두 부분 나누었다. 이는 한자어의 경우 모국어의 간섭으로 종성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韓國)’의 경우 ‘국’의 중국 한자음 영향으로 ‘한구’로 발음하여 종성 ‘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 고유어의 종성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율의 정도를 통해 한자어의 오류율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모국어의 발음이 제2 외국어를 습득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휘의 성격에 따라 용언과 체언을 분류한다. 선행 어휘의 종성은 후행 어휘의 초성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목록을 선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품사에 따른 분류이다. 즉, 품사에 따라 종성 발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체언(명사)이나 용언(동사, 형용사)의 범주에 따라 발음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대상 단어를 선택하여 체언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중 ‘-이’와 ‘-도’를 결합하여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용언에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 -고, -지’ 등을 결합한 실험

문장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명사 ‘집’은 ‘집이/집도’로, 용언 ‘잡다’는 ‘잡아/잡고/잡지’로 실현된다. 실험 문장의 예시는 사전에 나타난 예시 문장을 대체로 선정하였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우선 선택하고, 다음으로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高麗大中韓辭典』, 『Eduworld标准中中韩词典』 등의 사전을 참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직접 만들었다. 실험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실험 전 경험자에게 지도를 구했음을 밝힌다.

대상 어휘 선정의 세 번째 기준은 한국어의 종성의 종류를 감안하여 대상 어휘를 선정한 것이다. 즉, 한국어의 7종성을 중심으로 하되, 본래 어간 말음을 고려하여, ‘스, 지, 츠, 쿠, 트, 표, 흐’ 말음을 가진 어형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어형을 선택한 이유는 혹시 어간 말음에 따라 발음의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상 단어의 발음이 음절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기 위해 단어 선정에서 1음절 단어와 2음절 단어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발음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음절 길이로 인한 오류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어 자체의 길이가 발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음절 수 자체가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가져오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종성 발음의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전에 종성 발음의 오류를 예측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학습자들은 종성의 존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때 종성의 발음을 누락시킨다. 둘째, 학습자는 종성 존재를 자각하지만, 정확한 발음을 판단할 수 없어 종성 발음을 실수한다. 셋째, 종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 발음하기도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제때 교정되지 않아 화석화로 인해 발음에 오류가 생긴다. 넷째, 종성 발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종성 발음을 누락시켜 발음하기도 한다. 다섯째, 생소한 단어이기에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휘를 선정할 때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분한 후, 어휘의 성질에 따라 체언과 용언으로 구분하고, 실험의 완전성과 엄밀함을 위해 음절의 개수도 실험 기준 조건 중 하나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 <표 4>는 이상의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선정한 총 56개 대상 단어들이다. 용언들은 어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의 단어는 앞의 조건에 따라 선별하여 얻은 대상 단어이다. 그 중 'x'는 이 조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의미하거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어이다. 또한 'x'는 이번 실험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의 단어에 따라 알맞은 문장을 골라 실험 내용을 완성한다.

<표 2> 대상 단어표

		ㅂ	ㅍ [ㅍ]	ㅃ	ㅈ [ㅈ]	ㅊ [ㅈ]	ㅅ [ㅈ]	ㅎ [ㅈ]	ㅌ [ㅈ]	ㅍ [ㅈ]	ㄱ [ㄱ]	ㅋ [ㄱ]	ㄹ	ㅇ	ㄷ
1 음절 용언	고유어	잡-	높-	받-	맛-	웃-	낱-	갈-	쫓-	먹-	x	남-	안-	X	알-
	한자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 음절 체언	고유어	집	앞	X	낮	맛	X	끝	꽃	속	X	몸	눈	땅	말
	한자어	법	X	X	X	X	X	X	X	X	X	점	문	방	일
2 음절 용언	고유어	포집-	뒤집-	혈뜯-	꾸짖-	비웃-	X	톡갈-	내쫓-	X	X	더듬-	꺼안-	X	힘들-
	한자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 음절 체언	고유어	모습	무릎	X	밤낮	이웃	X	바깥	눈빛	생각	부엌	사람	가난	사랑	얼굴
	한자어	방법	X	X	X	X	X	X	X	지역	X	작품	인간	운동	사실

<표 2>의 단어는 앞의 조건에 따라 선별하여 얻은 대상 단어이다. 그 중 'x'는 이 조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의미하거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어는 'x'로 표시한다. 또한 'x'는 이번 실험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용언 단어에는 어간 부분만 쓴다. 표의 단어에 따라 알맞은 문장을 골라 실험 내용을 완성한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실험지는 대상자가 낭독형식으로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먼저 전체 오류율이 높은 학습자 집단이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계산한다. 그리고 오류의 원인 분석을 통해 밝힌다. 그리고 난 후 오류율이 높은 부분을 통계 처리한다. 최종적으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의

유형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표 3> 피험자 인적 사항

인수	등급	지역	피험자	성별	출신지	한국어 등급	한국어 학습 기간(년)
1	한국어 고급 학습자	남방	장0	여	지양시성	5	7
2			장00	남	안휘이성	5	10
3			왕00	여	안휘이성	5	3,5
4			평00	여	지양시성	6	7
5			도00	여	지양시성	6	5
6		북방	곽00	여	랴오닝성	6	5
7			채00	여	허베이성	5	4
8			왕00	여	네이멍구자치구	5	5
9			왕00	남	산둥성	5	5
10			장00	여	산둥성	5	4
11	한국어 중급 학습자	남방	호0	여	지양시성	4	5
12			황00	남	안휘이	4	1
13			유00	여	광둥성	4	1
14			주00	여	쓰촨성	4	2
15			도00	남	지양시성	4	4
16		북방	항0	남	랴오닝성	4	1.5
17			위00	여	허난성	4	4
18			김00	남	랴오닝성	3	1
19			이00	남	허난성	4	1
20			양00	남	산둥성	3	1

위에 <표 3>는 이 번 실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본 실험의 주목적은 남·북방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탐색하는 것이므로 성별을 기록 하기는 하였지만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2.1. 대조 분석,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제2 언어 습득 연구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제2 언어 습득 과정을 기술하고 제2 언어 습득의 특징을 주요 목표로 설명하는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다. 40년 이상 동안 제2외국어의 다면적이고 다방면적인 연구 패턴은 이 분야에서 이론의 끝없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중요한 이론적 논의에는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CA), 오류 분석(Error Analysis(EA) 및 중간언어(Interlanguage) 이론이 포함된다.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가 언어 오류를 범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으로, 이는 제2 언어 습득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언어 오류가 분석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개성과 공통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며 이론적 지식으로 요약되어 외국어 학습의 집합을 형성할 수 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응용 언어학자 라도(Lado) 등은 오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오류에 대한 초기 이론인 대조 분석을 만들었다. 라도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의 형태와 의미, 분포를 외국어와 문화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했다¹²⁾. 이러한 논의는 전 세계의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대조 분석은 언어기술에 기초한 방법으로 그 언어적 기반은 주로 블룸필드(Bloomfield)의 구조적 언어 이론이고 심리학적 기반은 주로 전이이론이다. 기본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때 모국어의 음성, 구조, 의미 또

12)Lado,R(1957).<Linguistics Across Cultures: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M]. Ann Arbor: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는 문화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면 전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같거나 유사한 두 가지 언어 규칙은 외국어 학습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전이(positive transfer)를 일으키고, 반대로 차이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전이(negative transfer), 즉 간섭(interference)이 발생한다.

언어 간의 차이는 제2 언어 습득에 대한 장벽이자 저항으로 간주된다¹³⁾. 대조 연구자들은 두 언어를 비교하고 비교하여 산출된 결과가 외국어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실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두 언어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고 믿는다. 비교분석 언어 간의 모든 차이점의 합계이다.

비교분석은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을 따른다. 제2 언어 습득은 모국어의 간섭을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제2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행동은 기계적 훈련을 통해 형성되며, 잘못된 언어 행동은 한 번 발생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 방법은 외국어 교수법에서 최대한 실수를 피하고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모국어 및 제2 언어 학습 과정의 문제점을 심리적, 언어적으로 기술하고, 언어학습과정의 일반법칙을 발견하고, 제2 언어를 최대한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방법 언어 학습 및 교육한다.

Lad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제2외국어를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는 교사는 학습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제2 언어 습득은 학습의 주체와 대상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만, 비교분석은 학습자의 주체와 학습 과정을 학습 대상으로 무시하고 언어 체계의 비교에만 국한된다. 교육 실습은 또한 비교분석으로 식별된 어려움이 실제로 오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많은 사실들이 많은 수의 오류가 모국어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식과 의미가 유사한 언어 항목은 종종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는 인간의 학습이 일반화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작은 차이점은 종종 간과되는 반면 명백한 차이점은 쉽게 찾고 기억한다. 절충적 비교분석은 모

13) James,C(1980).<Contrastive Analysis> [M].Harlow Essex:Longman.

국어와 목표어를 비교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인지, 심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을 발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서의 대조 분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어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전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양도 범위, 내용, 조건, 방법 등을 비교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대조 분석이 언어연구와 외국어 교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재검토하고 평가하고 대조 분석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대조분석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학습자가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언어 오류는 비교분석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은 두 언어의 비교에서 학습자의 언어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언어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로 연구 관심과 초점을 옮겨, 그렇게 함으로써 제2 언어 습득의 첫 번째 과정과 규칙을 드러낸다. 오류 분석의 초기 옹호자 중 한 사람은 이 주제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 코더였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다른 사람으로는 Selinker와 Richards가 있다.

비교분석의 심리학적 기초는 인지 이론이며, 언어적 기초는 촘스키(Chomsky)의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및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 언어 습득 과정을 규칙 형성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입력으로부터 목표 언어의 규칙에 대해 끊임 없이 가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며, 점차 목표언어에 접근하고, 대상 언어 규칙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류 분석의 목적은 제2 언어 학습자가 학습에서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학습 과정에서 취하는 전략과 실수의 원인을 발견하고 일반적인 학습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수 과정에서 실수를 수정하여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코더(Corder)는 오류 분석이 일반적으로 5단계를 따른다고 지적했다¹⁴⁾.

14) Corder, S(1967(5),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J].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 (1) 학습자의 언어 샘플을 수집한다. 여기에는 샘플의 크기, 샘플링 방법 및 샘플의 균질성이 포함된다.
- (2) 오류를 식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법과 의사소통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Corder는 또한 "과실", "오류" 및 "실수"를 구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3) 오류를 분류한다. 즉, 각 오류를 문법적으로 설명한다.
- (4) 주로 심리학과 언어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설명한다.
- (5) 주로 각 오류의 심각성과 채택된 주요 원칙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류를 평가한다.

학습자의 오류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첫째,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처한 상태와 단계, 그리고 계속 학습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교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연구자에게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거나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학습 전략과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단계를 이해한다. 오류 분석가는 제2 언어 학습자가 범한 오류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2 언어를 점차 숙달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학습 진행의 징후이며 오류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제2 언어의 숙달 정도를 반영한다고 믿는다. 언어 오류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제2 언어의 발달이 제1 언어의 자연스러운 발달 궤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자연스러운 궤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제2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 오류, 즉 언어 내 오류로, 이러한 오류는 언어 전달이 아니라 불완전 학습에 의해 발생한다. 실수를 하는 것은 배우고 있는 언어의 규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¹⁵⁾.

이론 및 연구 방법으로서 오류분석은 제2 언어 습득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 (1)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 분석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하고, 비교분석 연구는 외국어 교수실습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15) 杨连瑞,张德祿,等(2007),〈二语习得研究与中国外语教学〉[M].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 (2) 학습자의 '오류'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오류의 상태를 피하고 수정해야 하는 상태에서 내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가이드의 상태로 개선한다.
- (3) 과학적 오류분석 방법 및 절차 세트가 형성되었다. 오류 분석은 비교 분석에 이어 제2 언어 습득 연구 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전 단계이다.

물론 오류분석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1) "오류"의 정의와 구분 기준이 용이하지 않다.
- (2) "잘못된" 분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 (3) 오류분석은 언어의 공통점을 무시한다.
- (4) 오류분석 연구 항목이 불균형하다.

이것은 주로 발음, 문법 및 어휘의 잘못된 분석에서 나타나지만, 실용 및 문화적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연구자들은 '오류'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열정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점차 실용주의와 담론 분석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제2 언어 학습자는 모국어에서 제2 언어 습득까지 일련의 언어 전환 단계를 거친다. 그들이 제2 언어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말하는 언어를 중간언어(interlanguage), 즉 학습자가 모국어와 목표언어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모국어와 목표어가 모두 다르다.

중간언어 이론의 개념은 Selink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사 체계(approxinmative system), 고유한 방언(idiosyncratic dialects), 이행 능력(과도기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 등이다.

이 용어는 관련이 있지만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나타낸다. 하나는 특정 단계에서 학습자가 설정한 특정 목표언어 지식 시스템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corder가 학습자의 '내장된 강의 계획서'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습득 과정에서 일련의 연동 언어 시스템을 나타낸다¹⁶⁾.

16) Corder, S(1967(5)),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J].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Nemser의 가정은 언어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며 다음과 같다.

- (1) 주어진 시간에 대략적인 체계는 제 1 언어 및 제 2 언어와 구별된다.
- (2) 유사한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시리즈를 형성한다.
- (3)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같은 능력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유사한 시스템은 거의 동일하다¹⁷⁾.

따라서 구조적으로 중간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학습자의 목표언어에 속하지 않고 둘 사이의 독립적이고 인공적인 언어 체계이다. 그것은 언어 학습자의 언어가 상호 침투,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갖도록 한다. 학습의 발달과 함께 학습자의 언어 간 시스템은 점차 목표언어 시스템에 근접한다.

Selinker는 5가지 요소가 언어 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 (1) 모국어 간섭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언어 전달
- (2) 목표 언어 규칙의 높은 일반화
- (3) 지침으로 학습자의 시스템에 규칙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육의 이전
- (4) 제2 언어 학습 전략
- (5) 제2 언어 의사소통 전략

Selinker는 언어 전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언어 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적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학습자가 제2 언어 시스템을 내면화하는 수단을 구성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 부담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줄이려고 한다¹⁸⁾. Widdowson은 위의 학습 과정을 단순화라고 한다¹⁹⁾. 단순화 능력은 정상적인 인간 언어 의사 소통 능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Linguistics,.

17) Nemser,W.(1971(9)),<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J].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Selinker,L.(1972).<Interlanguage> [J].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9) Widdowson,H(1979).<Exploring in Applied Linguistics>[M].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상호언어 연구는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도 계몽적 의의가 있다.

브라운(Brown)은 언어 간 발달을 4단계로 더 나눈다.

- (1) 오류 단계,
- (2) 언어의 형성 단계,
- (3) 시스템 단계,
- (4) 안정적인 단계²⁰⁾.

학습자가 범하는 실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목표언어에 대한 막연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설명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실수를 목표언어 체계의 기초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목표언어의 나는 또한 때때로 내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어 간 형성이 진화적 과정임을 알 수 있으며, 어느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간 체계에 따라야 할 규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²¹⁾.

언어 간 문법의 본질은 학습자의 기존 언어 지식과 언어 지식에 대한 정확하고 심오한 인식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진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수용이 종종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 경험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언어 간 차이는 학습자 개인의 차이, 학습 환경, 관련된 언어의 세 가지 변수로 설명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제2외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위의 설명에 따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 중국어 방언의 분포와 사용에 따라 방언 사용자와 비사용자는 따로 영향을 받는다. 즉, 둘 사이에는 언어 발음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남방 학습자와 북방 학습자는 서로 다른 언어 습관이 제2외국어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이론과 추측에 따르면 본 연구의 주제는 중국 북방 방언과 남방 방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20) Brown, H.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M]. Englewoodcliffs, NJ: Prentice Hall, Inc.

21) 柏华, 董英. 对比分析、错误分析的局限性和互补性讨论[J]. 兰州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999(1).

말이다.

2.2. 중국어 남·북방 방언에 따른 종성발음의 특징

현대 중국에서는 남방 방언에는 고대 중국어의 현상으로 입성 발음이 남아 있지만 북방 방언에는 보통화의 사용으로 입성 발음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남방 방언과 북방 방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방언은 관화(북방 방언) 그 외의 방언들로 구분되는데 즉 입성이 없는 관화 방언(官話方言)²²⁾과 입성이 남아 있는 나머지 지역의 9종 방언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방언은 관화 방언, 진(晉) 방언, 오(吳) 방언, 민(閩) 방언, 객가(客家) 방언, 월(粵) 방언, 상(湘) 방언, 간(贛) 언, 휘(徽) 언, 평화(平話) 언의 10 가지 방언으로 나뉜다. 그 중에 평화(平話) 방언은 군속의 일종이지만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평화 방언을 월 방언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관화 방언은 이전에 '북방 방언'으로도 알려졌다. 그 중에 북방 관화 방언은 동북(東北) 관화, 북경(北京) 관화, 기로(冀魯) 관화, 교려(膠遼) 관화, 중원(中原) 관화, 란음(蘭銀) 관화로 나뉜다.²³⁾ 관화의 주요 특징은 일반적으로 입성이 없고 부드러운 경성이 추가된다. 현대 중국어는 중세 중국어의 여섯 자음 운미 가운데 [-n], [-ng]만이 남아 있다. 이 중 강회 관화는 어휘와 음운 면에서 관화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화민국 시대에는 회 방언이 관화의 한 분파라기보다는 월 방언, 오 방언과 함께 중국의 주요 방언 지역으로 여겨졌다. 1955년까지는 처음으로 관화의 한 분파가 분류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 관화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 바이두 도서관: 관화 방언은 현대 한족의 공용어의 기본 방언이며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다.

23) 바이두 도서관: 中国方言概说.

<표 4> 중국어 관화의 특징

	관화	특징
1	동북(東北)관화 ²⁴⁾	운미 -n, -ng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2	북경(北京)관화 ²⁵⁾	운미 -n, -ng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3	기로(冀魯)관화	운미 -n, -ng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4	교려(膠遼)관화	운미 -n, -ng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5	중원(中原)관화	운미 -n, -ng이 있다. 일부분 지역은 -m의 운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6	란음(蘭銀)관화	운미 -n, -ng이 있다. 입성이 보존되지 않았다.

위의 표는 북방 여러 관화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북방 관화는 입성을 보존하지 않고 운미 [-n], [-ng], 일부분 지역이 운미[-m] 정도만 사용한다. 현재 보통화는 관화 방언과 거의 비슷하고 [-n], [-ng]이 있다. 나머지 아홉 방언의 종류는 현대 중국 방언의 성운 유지와 표현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중국어 남방 방언의 특징

	입성	방언 분포
①	입성[-p], [-t], [-k]	월 방언, 민 방언, 객가 방언, 평화 방언, 일부분 간 방언
②	입성[-t], [-k]	대부분의 간 방언 특징 분류
③	끝소리[-ʔ]	오 방언, 회 방언, 진 방언, 민 방언(민동 방언, 푸젠 방언), 강회 관화, 독립발음의 극소수의 서남 방언
④	독립 어조	일부 기로 관화, 민 방언(민북 방언, 민중 방언), 신상 방언, 강회 관화의 일부, 독립 억양이 있는 서남 관화

중국은 하얼빈에서 쿤밍까지 3,000km에 이르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직선의 서쪽과 북쪽에는 넓은 지역의 북쪽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中國語言地圖集(중국 언어 지도집)>에 따라 최소 4개의 큰 지역과 8개의 작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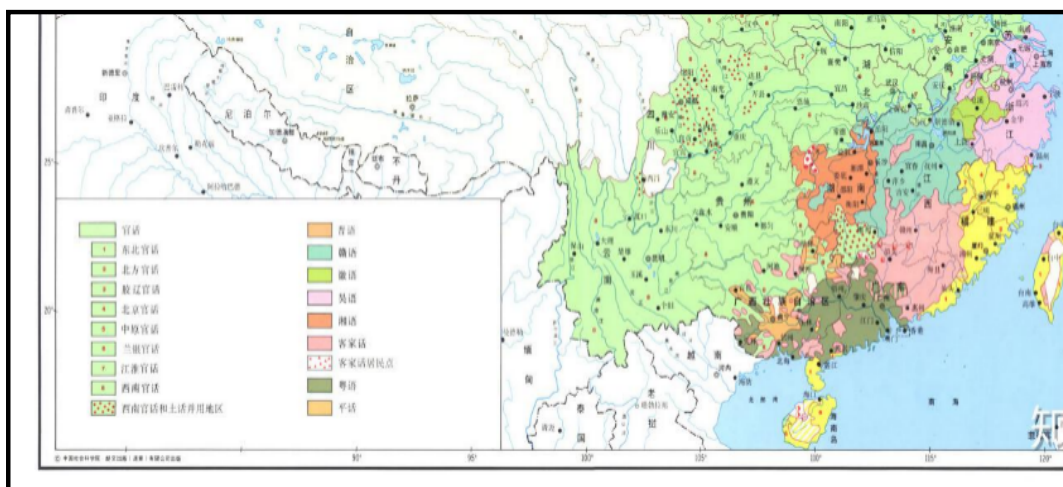
24) 刘晓梅(2008), 期待绚烂绽放:百年东北官话研究述评《CNKI》.

25) 顾会田(2011), 北京官话区朝峰片汉语方言语法说略:赤峰学院科技处.

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언 영역의 범위 안에 각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 북쪽 방언의 내부 문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어휘 차이도 비슷하며 이 지역은 중국어권 지역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중국인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쪽 방언은 한족의 공통 언어이다. 이 지역은 현대 중국어의 기본 언어가 되었다.

오랫동안 북쪽 방언은 공용어로 존재해 왔다. 이 직선의 동쪽과 남쪽에서는 상황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지역 방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지난 600년 동안 중국은 방언은 (北方官話)북방관화, 오(吳)방언, 민(閩)방언, 객가(客家)방언, 월(粵)방언, 상(湘)방언, 간(贛)방언, 휘(徽)방언, 평화(平話)방언의 9 가지 주요 지역 방언으로 나뉜다. 후자의 8개 방언은 주로 중국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두 고대 중국어의 많은 요소를 보존하고 있다. '남방 방언은 오래된 수나라와 당 나라의 음 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王弘治(왕홍지)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방언 분포도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북방과 남방 방언이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발음 습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들은 남방 방언과 북방 관화(官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즉, 입성을 유지하는 남방 방언과 입성을 유지하지 않는 북방 관화이다. 북쪽에서 사용하는 관화는 보통화(普通話)와 다르지만 입성을 유지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의 북부 지역은 주로 보통화를 사용한다²⁶⁾. 그러므로 다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방언과 보통화라고 쓴다.

2.2.1. 입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방언에 사용인구에 따라 구역을 나눈다. 다음은 주로 7개의 남부 방언의 분포이다.

1) 오 방언(吳語)²⁷⁾은 중국에서는 저장(浙江)성, 강소(江蘇)성 남부, 상해(上海), 안후이(安徽)성 남부, 강서(江西)성 동북부, 푸젠(福建)성 북부의 한 자락에 분포한다.

2) 민 방언(閩語)²⁸⁾으로는 푸젠(福建)성·광둥성·하이난(海南島)·레이저우(雷州)반도 등이 구체적으로 통용된다.

3) 객가 방언(客家話)²⁹⁾은 주로 광둥(廣東)성·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푸젠성·강서성과 사천(四川)성·호남(湖南)성·해남(海南)성·저장성·충칭(重慶)시와 대만·홍콩 일부 지역을 통용한다. 주로 광둥성 동부와 북부, 광시성남부, 장서남부, 푸젠성 서부가 지역을 통용한다.

4) 광둥어(廣東話)³⁰⁾는 주장 삼각주를 중심으로 분포해서 중국의 광둥·광시좡족자치구·해남성, 홍콩, 마카오에 있다.

5) 상 방언(湘語)³¹⁾으로 후난(湖南)성의 대부분과 광시북부에 분포한다. 주로 후

26) <中华人民共和国国家通用语言文字法> .

27) 바이두 도서관: 吴语协会 .

28) 侯精一主编(2002) . 《现代汉语方言概论》.

29) 陈恩泉主编, 黄永坚英文编译(2017.12.231), 双语双方言用语论集 《双语双方言》专辑 (引介) 中英文对照. 北京: 国际文化出版公司.

王志纲著(2005.02.226), 第三种生存 王志纲社会经济观察录. 成都: 四川美术出版社,

陈泽泓著(2008.10.216.), 广府文化. 广州: 广东人民出版社,

高文平著(2015.05.157.), 语言之界. 重庆: 重庆大学出版社.

30) 중국 신문網: 《岭南文化的宝典: 粤语》.

31) 彭建国(2006), 《湘语音韵历史层次研究》: 湖南大学出版社.

난성의 대부분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다.

6) 간 방언(贛語)³²⁾ 사용 인구는 주로 강서省内에 중북부 즉 간강(贛江)의 중하류에 푸강(撫河) 유역, 슈강(修河) 유역 및 포양호(鄱陽湖) 주변, 호남성 동부와 후베이(湖北)성 북서부, 안후이(安徽)성 남부, 안후이성 남서부, 호남성 서남부 등의 지역을 분포한다.

7) 현대 휘방언(徽語)³³⁾은 오방언(吳語)로 분화되고 안후이성 남부, 장시 동북부, 저장성 서부에 분포한다.

2.2.2. 관화를 사용하는 지역

다음은 입성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지역이다. 다음 단계는 실험 대상도 지역별로 분류해 선정한다.

1) 동북 관화(東北官話)³⁴⁾는 헤이룽장(黑龍江)성·지린(吉林)성·랴오닝(遼寧)성의 극히 일부, 내몽골 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동부, 허베이(河北)성 동북부에 분포한다.

2) 베이징 관화(北京官話)³⁵⁾는 명칭에 '베이징'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베이징 관화는 베이징어가 아니라 주로 베이징(北京)시·허베이(河北)성 승덕(承德)시, 낭방(廊坊)시, 탁주(涿州)시,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적봉(赤峰)시, 랴오닝(遼寧)성 차오양(朝陽)시, 링위안(凌源)시에 분포한다.

3) 기로 관화(冀魯官話)³⁶⁾는 허베이(河北)성 대부분, 산둥(山東)성 대부분, 베이징(北京)시에 걸쳐 있다.

4) 자오랴오 관화(膠遼官話)³⁷⁾는 주로 산둥(山東)성 자오둥(半島東)반도, 랴오닝

32) 曹志耘(2002年1月), 《南部吴语语音研究》, 商务印书馆.

<贛語> ‘汉语七大方言区之一’

33) 바이두 도서관: 《徽州方言》.

34) 张志敏(2005), 东北官话的分区(稿)《CNKI》.

35) 顾会田(2011), 论赤峰片汉语方言的形成与归属:《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2011年第八期, 202-203.

36) (1990), 中国社会科学院及澳大利亚人文科学院. 中国语言地图集. 香港: 香港朗文.

(遼寧)성 라오둥(半島東)반도, 압록강(鴨綠江) 하류 지역에 분포한다.

5) 중원의 관화(中原官話)³⁸⁾는 주로 허난(河南)성 대부분, 산시(山西)성 남부, 안후이(安徽)성 서북부, 산시(陝西)성 관중, 간쑤(甘肅)성 동부, 칭하이(青海)동부, 신장(新疆)톈산 이남 지역 등에 분포한다.

6) 란저우 관화(蘭州官話)³⁹⁾는 간쑤(甘肅)·닝샤(寧夏)·신장위구(新疆維吾) 북부, 내몽골(內蒙古)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2.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대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중성 습득 영향에는 중국 북방 출신자와 남방 출신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대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음절은 초성,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 음절 구조는 (C)V(C)로, V, CV, VC, CVC의 네 가지 음절 구조 유형이 있다⁴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음절 형식

(1) ‘ㅇ’ + 모음 (단모음/이중 모음)

예: 아/위

(2) 자음 + 모음 (단모음/이중 모음)

예: 가/귀

까/띄

○폐음절 형식

(3) ‘ㅇ’ + 모음 + 자음

예: 압/원

37) 张树铮(2007), 胶辽官话的分区(稿), 《方言》.

38) 贺巍(2005),《方言·第二期·中原官话分区(稿)》.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所, pp: 130~140.

39) 李荣(1985), 《官话方言的分区》,《方言》期刊1985年第一期, pp2-5.

40) 권성미(2000), <한국어 발음 교육론>, p.160 인용.

없/왔

(4) 자음 + 모음 + 자음 / 자음과 자음

예: 밥/권

밖/뿔

위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론적 특징 중 하나는 폐음절 단어가 많다⁴¹⁾는 점인데, 이는 중국어가 주로 개음절이 이루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어(보통화)에서 대부분의 자음은 음절의 초성 부분에만 나타날 수 있고 음절의 끝 부분에는 나타날 수 없다. 음절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n], [ŋ] 두 개만 가능하다. 중국어 보통화의 405개의 기본음절 중 모음의 끝에 개음절은 23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음 [n], [ŋ]이 음절 말에 폐음절이다⁴²⁾. 반면 남방 방언은 입성([p],[t],[k])이 남아 있다. 이에 중국어와 한국어는 음절 구성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볼 수 있다.

41) 한국어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국어(보통화)는 [n], [ŋ]만 음절말 올 수 있다. 즉 한국어 종성 중에서 ㄴ, ㅇ을 제외하고 ㄱ, ㄷ, ㄹ, ㅁ, ㅂ은 그와 비슷한 중국어 종성 발음이 없다.

42) 바이두 도서관, '现代汉语音节结构特点', 2015, pp.1-3, 참조.

Ⅲ. 발화·청취 차원의 중국어 학습자의 종성 발음 양상

3.1. 발화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종성 발음의 오류 원인을 밝혀내어 학습자에게 더 나은 학습 방법을 인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한국어 수준과 출신 지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낭독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녹음하였다. 그리고 잘못 발음한 단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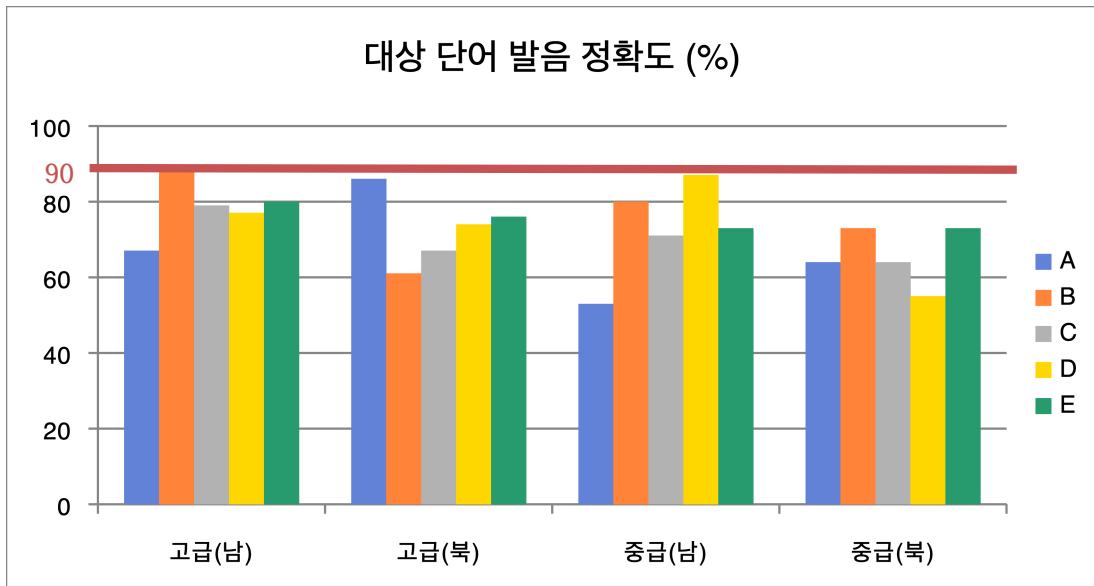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종성의 잘못된 발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학습자에게 더 나은 학습 방법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실험을 통해 남방, 북방 학자들의 모어 방어가 한국어 발음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1. 종성 발음 현황

실험에는 총 56개의 대상 단어가 선정되었다. 56개의 단어는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유어 45개와 한자어 11개로 구성되었다. 45개의 고유어 중 1음절 단어는 23개, 2음절 단어는 22개이고, 11개의 한자어 중 5개의 1음절 단어와 6개의 2음절 단어가 있다.

총 56개 단어로 모두 134개의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를 피험자들에게 소리 내어 읽고 적도록 하였다.

<그림 2> 전체 실험자 발음 정확도



위의 <그림 2>는 20명의 피실험자가 발화한 발음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는 등급별 남방과 북방 학습자의 표지이다. 중급 및 고급 학습자 모두 단어의 발음 정확도는 90% 이상 피실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음의 정확도가 80% 이상인 피실험자는 5명, 70% 이상은 8명, 60% 이상 5명, 50% 이상이 2명이다.

정확도가 80% 이상인 학습자 5명 중 4명은 남방 학습자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북방 학습자가 종성을 발음할 때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20명의 피실험자의 발음 정확도는 평균 72%로 확인되었다.

<표 6> 7종성 발화 정확도

		ㅂ	ㄷ	ㄱ	ㅁ	ㄴ	ㅇ	ㄹ	평균
고급	남방	91	59	68	95	100	95	94	86
	북방	75	54	63	88	98	97	88	80
중급	남방	71	53	57	90	100	100	95	80
	북방	73	43	61	80	100	95	81	76
평균		77	52	62	88	99	96	89	

위의 <표 6>은 20명 피실험자의 7종성 발음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을 보면 남방 고급 학습자의 평균 발음 정확도가 86%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북방 고급 학습자, 남방 중급 학습자로 발음 정확도가 80%에 달한다. 마지막은 북방 중급 학습자는 발음 정확도가 76%로 나타났다(백분위수만 계산 과정에서 반영).

또한 7종성의 정확한 발음의 관점에서 볼 때 [ㄱ, ㄴ, ㅇ, ㄹ] 발음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각각 88%, 99%, 96%, 89%로 나타났다. 특히 [ㄴ, ㅇ]이 정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ㄱ]과 [ㄹ]은 본래 소리대로 발음하는 오류가 나타났다지만, 발음의 정확도는 높았다. [ㄴ, ㅇ] 종성은 오류율이 낮았는데 이는 아마 중국어에 [n], [ng]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결국 한국어 학습자들 경우 중국어의 비슷한 종성 소리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오류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7종성 중의 [ㅂ], [ㄷ], [ㄱ] 세 음은 다른 종성들보다 발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ㅂ] 종성 발음의 정확도가 77%, [ㄷ] 종성 발음은 정확도가 52%, [ㄱ] 종성 발음은 정확도가 62%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7> [ㅂ, ㄷ, ㄱ] 종성 발음 정확도(%)

[ㅂ, ㄷ, ㄱ] 종성 발음 정확도(%)					
	남방		북방		평균 정확도
	고급	중급	고급	중급	
ㅂ	91	72	80	84	81
ㅃ[ㅂ]	92	70	71	62	73
ㄷ	66	50	50	46	53
ㅌ[ㄷ]	54	58	56	54	55
ㅅ[ㄷ]	68	64	60	48	60
ㅎ[ㄷ]	30	20	30	20	25
ㅌ[ㄷ]	80	64	66	50	65
ㅊ[ㄷ]	60	62	62	44	57
ㄱ	76	74	66	62	69
ㅋ[ㄱ]	60	40	60	60	55
평균 정확도	67	57	60	53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ㅂ, ㄷ, ㄱ] 종성 발음의 경우 발화의 정확도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는 대부분은 학습자들이 /ㅃ/종성이 [ㅂ]으로, /ㅌ, ㅅ, ㅎ, ㅌ/종성이 [ㄷ]으로, /ㅋ/종성이 [ㄱ]으로 평파열음화 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뒤에서 오류 양상 정리 참고하여). 그러나 [ㅂ, ㄷ, ㄱ] 종성들 외의 나머지 [ㄴ, ㄹ, ㅁ, ㅇ]의 종성들은 발음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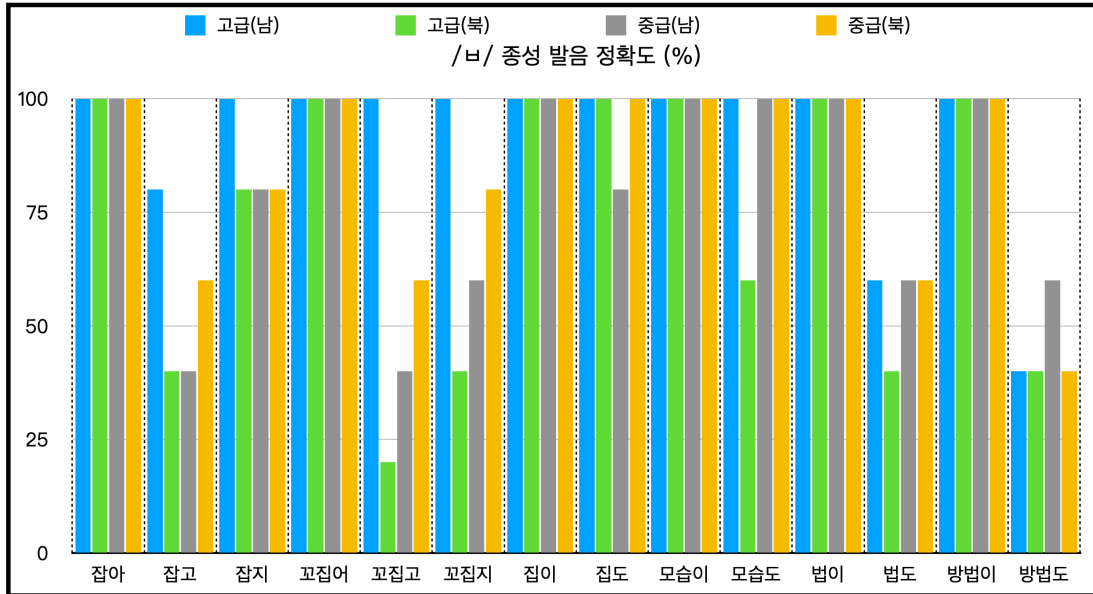
결국 [ㅂ, ㄷ, ㄱ] 종성들의 발화에서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파열음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파열음 [ㅂ, ㄷ, ㄱ]의 각각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 [ㅂ] 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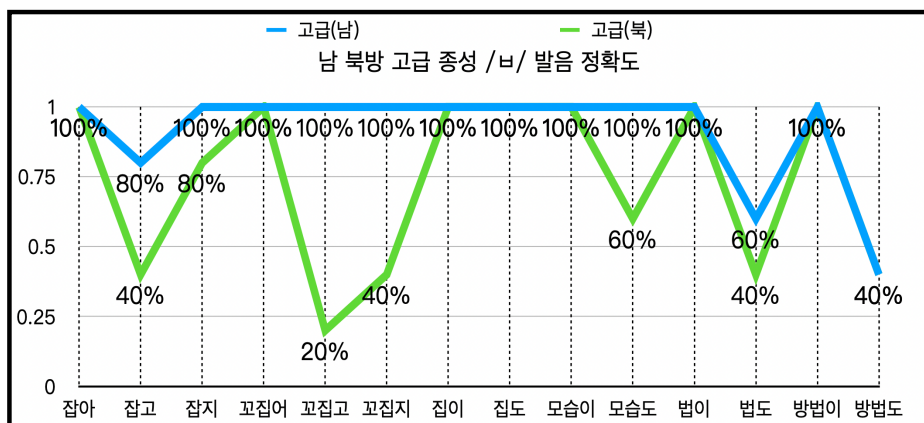
(1) /ㅂ/종성

<그림 3> /ㅂ/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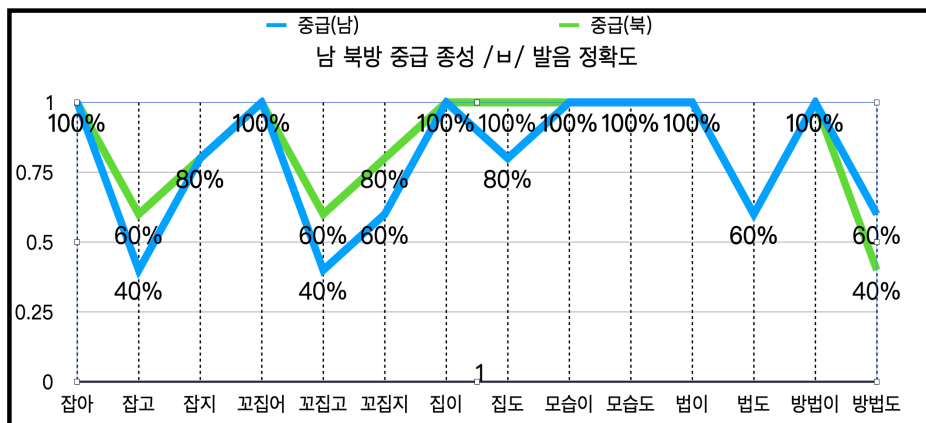
위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종성음 /ㅂ/ 뒤에 모음이 연결될 때는 발음이 100% 정확하지만, 후행 연결이 자음일 때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종성의 누락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업 능력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고급 학습자보다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북방 학습자들이 종성의 누락으로 인한 발음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남·북방 고급 학습자의 /ㅂ/종성 발음 정확도



위의 <그림 4>를 보면 북방의 학습자들이 /ㅂ/ 종성 발음에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나타나는 양상은 종성 소리를 누락시켜 발음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이다. 가령 ‘잡고’, ‘잡지’의 경우 [자고]와 [자지]로 발음하였다. 그리고 ‘법도’, ‘모습도’, ‘방법도’를 발음할 때도 똑같이 종성 /ㅂ/을 누락해서 [버도], [모스도], [방버도]로 발음하는 오류를 보였다. 특히 ‘방법도’의 경우 총 6명 학습자에게서 오류가 나타났다. 그 중에 ‘꼬집다’의 경우 북방 학습자는 4명이 [꼬지고]로 발음하고 3명이 [꼬지지]로 발음하였다. 반면 남방 학습자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그림 5> 남·북방 중급 /ㅂ/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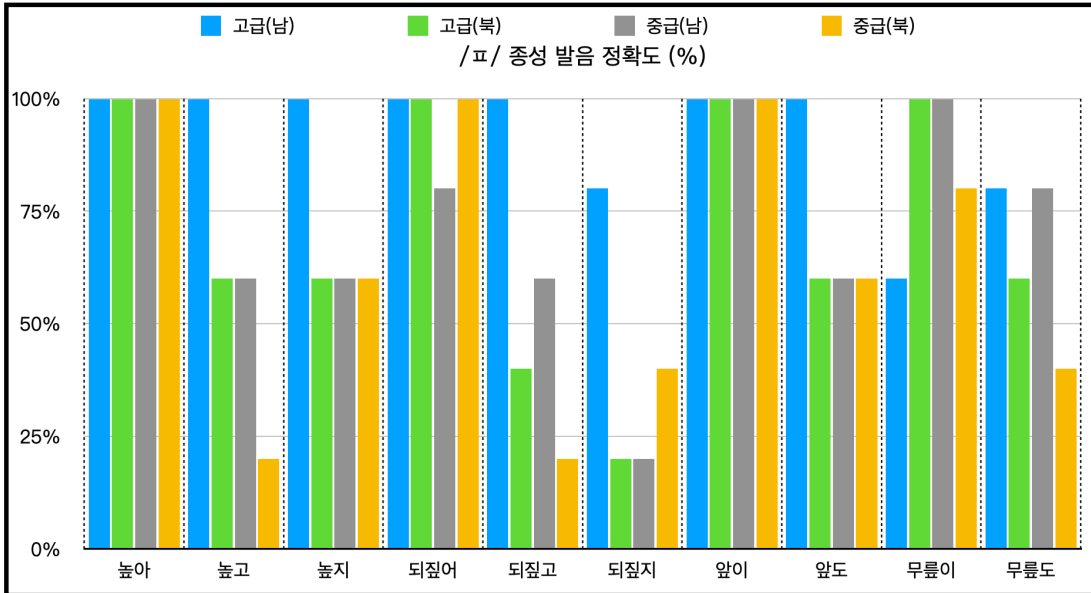


<그림 5>를 보면 중급 학습자들에게서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오류 양상을 보면 종성을 누락시킴에도 불구하고, 종성 발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잡고’는 [자브고], ‘잡지’는 [자브지], ‘꼬집고’는 [꼬지브고], ‘꼬집지’는 [꼬지브지]로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북방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북방 학습자는 종성 발음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화석화된 발음 습관으로 인해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성/ㅂ/은 발음 실험 결과 보면 주로 누락 현상이 나타났다.

(2) /ㅍ/종성

<그림 6> /ㅍ/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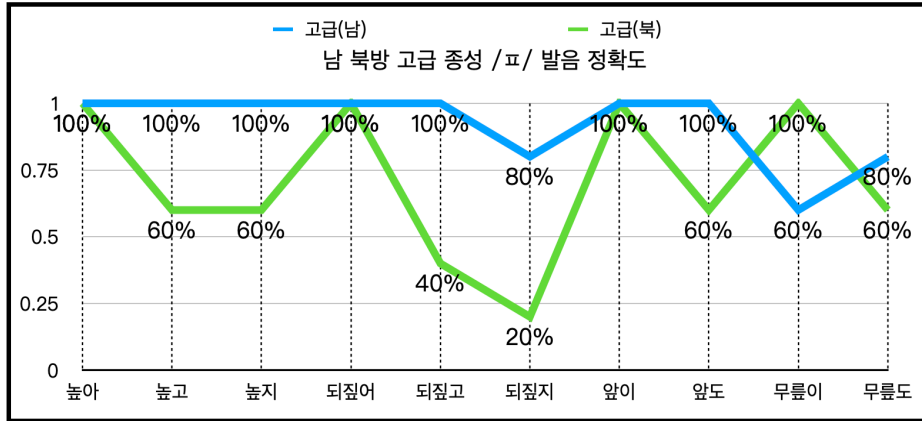
한국어에서 종성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후속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은 ‘ㅍ’을 [ㅂ]으로 발음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고급 학습자들은 /ㅍ/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81%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92%와 70%였다. 중급 학습자들은 ‘ㅍ’ 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66.5%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71%와 62%였다.

고급 학습자 중에 남방 학습자는 주로 ‘되잖지’, ‘무릎이’, ‘무릎도’에 대한 [되지피], [무르비], [무르도] 발음 오류가 나타난다. 위의 종성 누락 현상을 제외한 모든 것은 종성의 발음에 대한 학습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음 오류이다. /ㅍ/은 연음 발생할 때 /ㅍ/본시 소리 사용하고, 종성 위치에 사용하여 대표소리 [ㅂ]으로 발음하여 이런 규칙을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된 발음을 유발한다.

또 북방 학습자는 오류 양상이 3가지 나눈다. 첫째 종성 소리 누락, ‘높지’, ‘높고’, ‘되잖지’, ‘되잖고’, ‘무릎도’는 [노지], [노고], [되지지], [되지고], [무르도]를 발음한다. 둘째 대치 현상, ‘무릎도’는 [무름도]로 발음한다. 셋째 모음 첨가 현상,

‘높고’, ‘앞도’, ‘되짚지’는 [노프고], [아프도], [되지프지]를 발음한다. 아래 표를 정리되었다.

<그림 7> 남·북방 고급 /ㅍ/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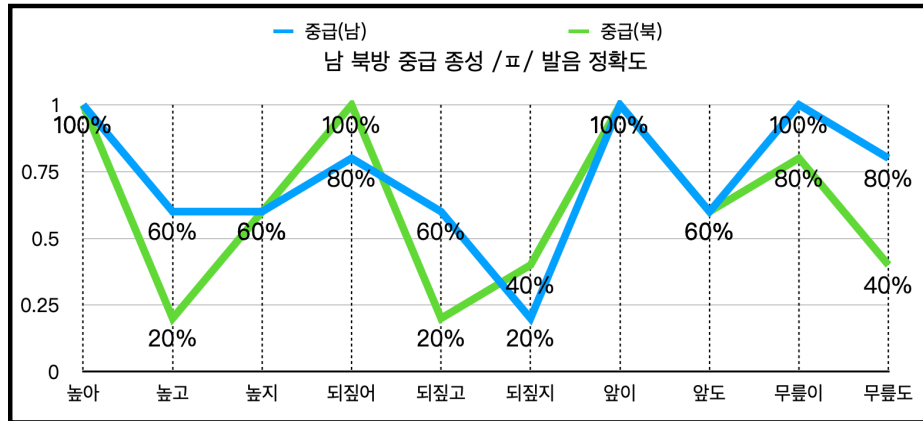


고급 학습자에 비해 중급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방 학습자들의 경우 독특한 ‘중국식’ 발음방식이 습관으로 남아 발음 오류로 연결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ㅍ’ 종성 소리 위치의 경우 ‘높-’과 ‘앞-’이라는 종성 자음이 있는 어간 뒤에 어미 ‘-고, -도’가 연결될 때 어간과 어미 사이에 모음 ‘-’가 첨가되어, [노프고]와 [아프도]로 발음했다. 이런 발음의 오류는 중급 학습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부 고급 학습자에게도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발음 오류는 북방과 남방 학습자 모두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남방 학습자보다 북방 학습자의 오류 발생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오류 발생 빈도에 있어 학습자들이 낮설게 인식하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에서 오류 빈도가 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³⁾ 가령, ‘되짚다’라는 단어는 ‘높다, 앞, 무릎’보다 사용 빈도가 낮아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했다. 또한 후행하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음이 후행할 때는 ‘ㅍ을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음 첨가해서 [되지프고], [되지프지]와 같이 발음하는 모습을 보였다.

4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대상 단어 선정 기준 사용 빈도에 따라함.

<그림 8> 남·북방 중급 /ㅍ/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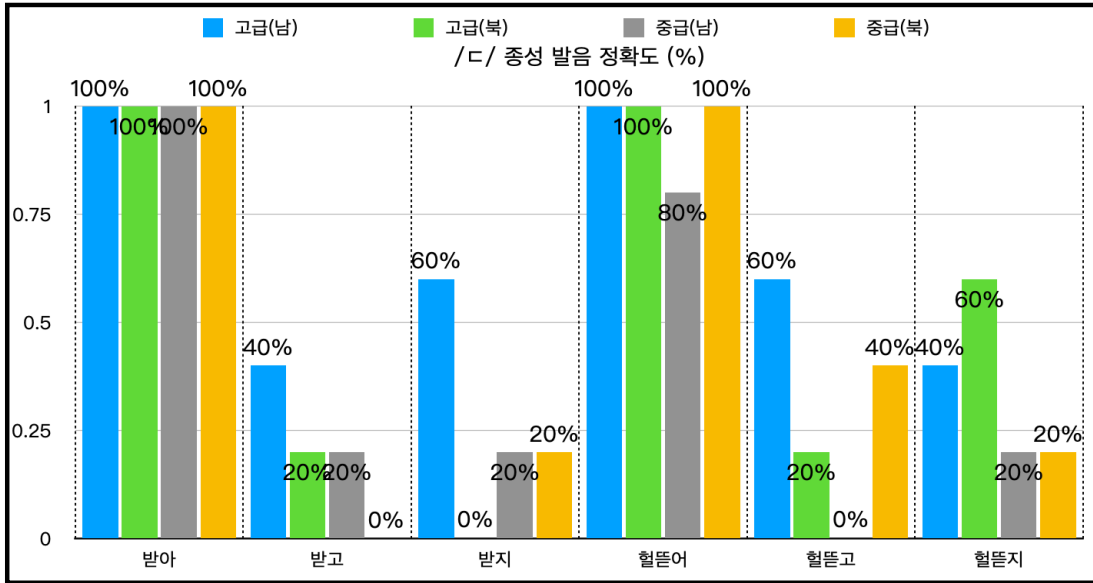
종성/ㅍ/은 발음 실험 결과에 따라 주로 누락 현상과 모음 첨가 현상이 나타났다.

3.1.3. [ㄷ]종성

(1) /ㄷ/ 종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성 /ㄷ/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매우 낮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 ‘받다’ 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헐뜯다’ 라도 오류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ㄷ] 종성 소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의해야 할 한 발음 중 하나이다.

<그림 9> /ㄷ/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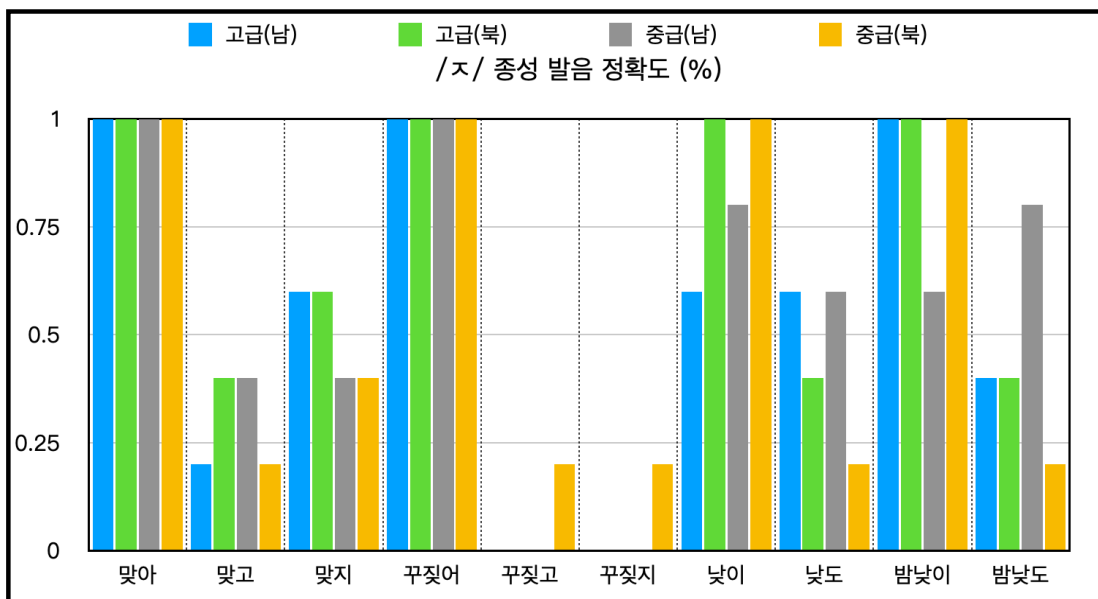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물론 고급 학습자도 실수를 하는 것은 중급 학습자가 실수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남방 학습자와 북방 학습자 모두 ‘받다, 헐뜯다’ 이 두 단어에 대해 잘못된 발음이 많이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더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은 북방 학습자들이다. 종성 소리 /ㄷ/는 혀소리이고 설을 위치 움직이고 구강 공기 빨리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발음 과정이 어렵다. 또 종성 /ㄷ/는 후행 자음으로 연결될 경우 후행 모음으로 연결될 때보다 발음난이도가 높아진다. 또한 중국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발음 습관이 한국어의 종성 발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높은 오류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습자들이 이번 실험 조사 대상 단어는 ‘받고, 받지, 헐뜯고, 헐뜯지’ 전부 다 [바고, 바지, 헐뜨고, 헐뜨지]로 종성소리 빼고 발음하는 누락 현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 한 명 남방 학습자만 ‘헐뜯고, 헐뜯지’는 [헐뜯고, 헐뜯지]로 발음하는 대치 현상이 일어났다.

(2) /ㅈ/종성

이 실험을 통해 수집된 결과에 따르면 종성 ‘ㅈ, ㅊ, ㅎ, ㅌ, ㅍ’이 ‘ㄷ’으로 발음되는 부분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종성 ‘ㅈ, ㅊ, ㅎ, ㅌ, ㅍ’을 ‘ㄷ’으로 발음해야 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학습자는 종성을 탈락시킨 채로 발음하기도 했다.

<그림 10> /ㅈ/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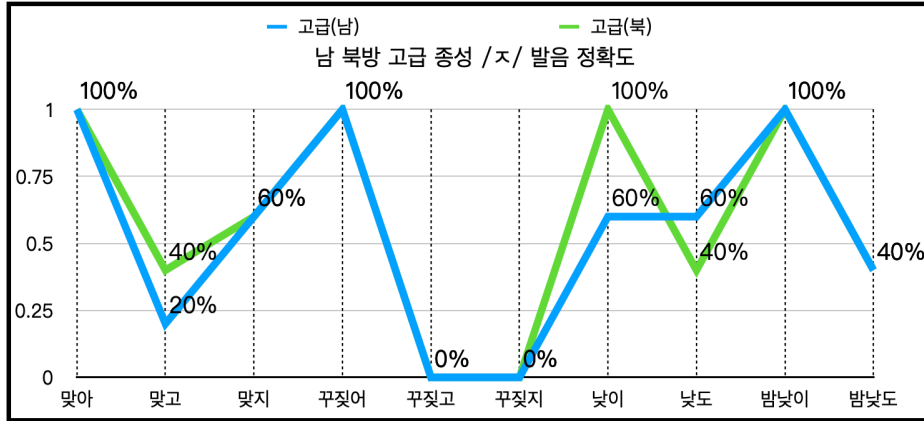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ㅈ/은 후행 자음 ‘ㄱ, ㅈ’ 일 때 오류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ㅈ/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56%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54%와 58%였다. 중급 학습자들은 /ㅈ/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55%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56%와 54%였다.

그 중 ‘꾸짖다’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 단어이며, 학습자들은 ‘꾸짖-’이 후행 자음 ‘ㄱ, ㅈ’을 만나면 종성 소리가 누락되고, 어미 ‘-고, -지’와 연결되어 [꾸지고, 꾸지지]로 잘못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꾸짖다’라는 단어는 전체 학습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발음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 학습자가 몇 명 있었다. 이를 통해 낯선 단어의 종성 발음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연습과 기억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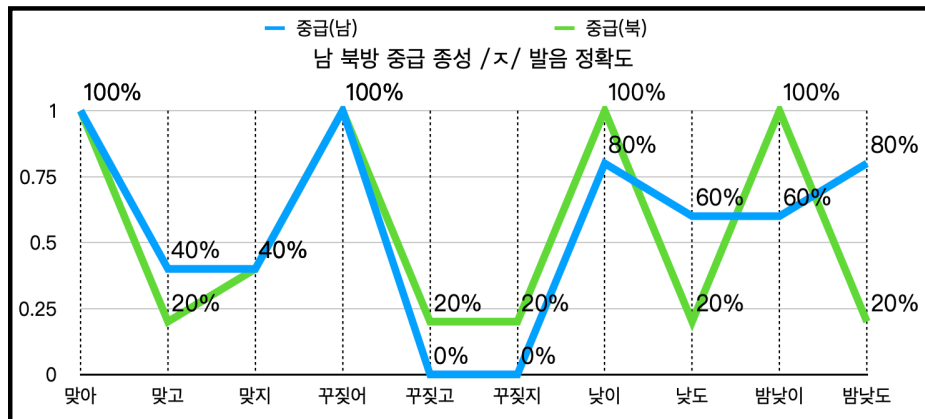
해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남·북방 고급 /ㅈ/종성 정확도



이 실험에서 남방의 학습자들은 종성 발음의 대표소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이 중 남방 학습자는 ‘꾸짖고, 꾸짖지’가 [꾸집꼬, 꾸집찌]로 발음한다. 또한 학습자가 종성 발음을 확신할 수 없어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과 불확실한 발성으로 잘못된 발음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방 학습자들이 ‘맞고, 맞지, 낮도, 밤낮도’의 종성을 누락시킨 채 [마고, 마지, 나도, 밤나도]로 발음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림 12> 남·북방 중급 /ㅈ/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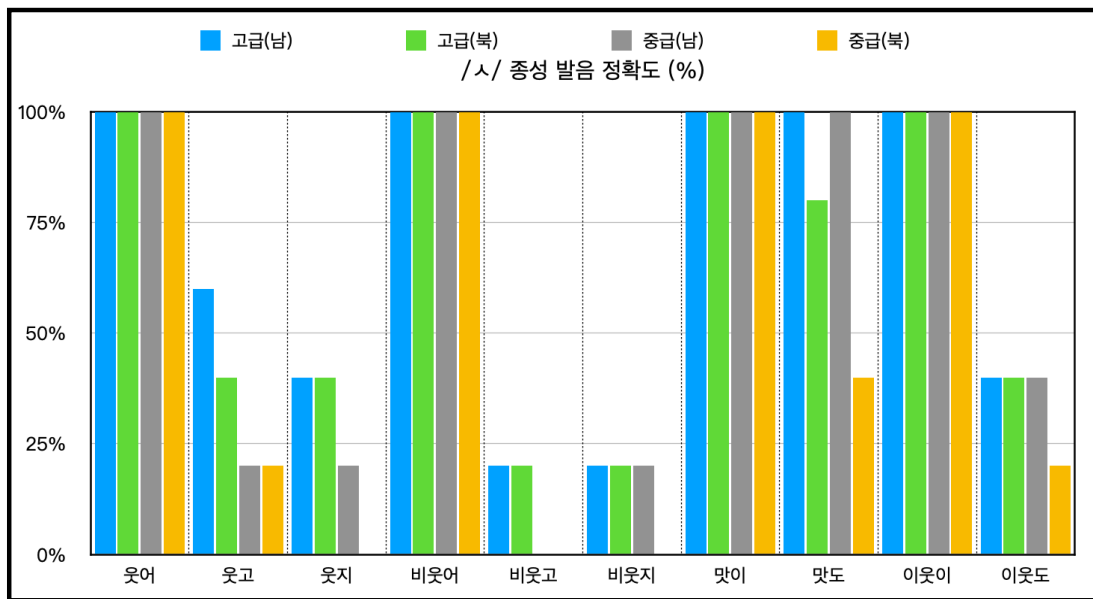


중급 학습자들도 주로 종성을 누락시켜 발음함으로써 발음 실수를 자주 범했는데, 이 중 남방 학습자들은 ‘낮이, 밤낮이’는 [나이, 밤나이]로 발음했다. 후행 조사와 연결될 때, 종성 소리가 누락 된 뒤 조사와 직접 연결되어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맞지’는 [막찌]로 발음하는 대치 현상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발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종성을 누락시킨 채 발음하거나 잘못된 대치 현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 보면 종성/ㄷ/은 주로 누락 현상과 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3) /ㄷ/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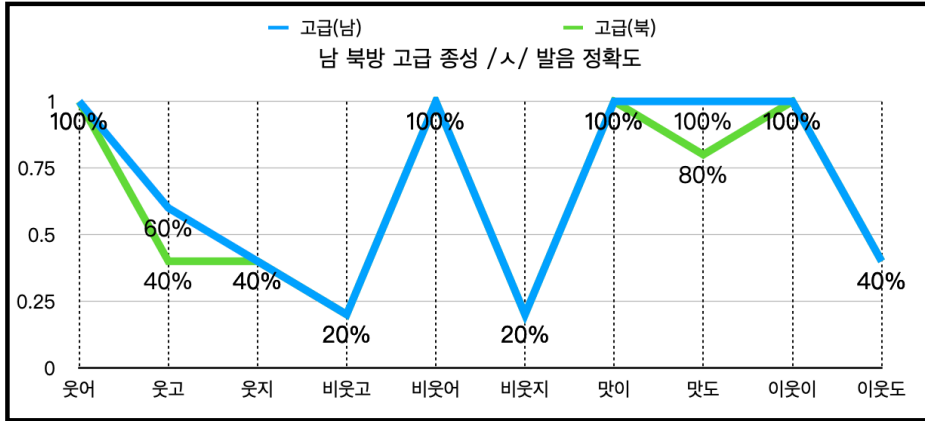
<그림 13> /ㄷ/종성 정확도



그림을 보면 앞의 오류 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발음에 있어, 사용 빈도와 오류율은 반비례한다. 즉,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발음의 오류율이 낮아진다. 20명의 학습자 중 90% 이상이 ‘비웃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급 학습자들은 /ㄷ/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66%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68%와 64%였다. 중급 학습자들은 /ㄷ/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54%였다. 남·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각각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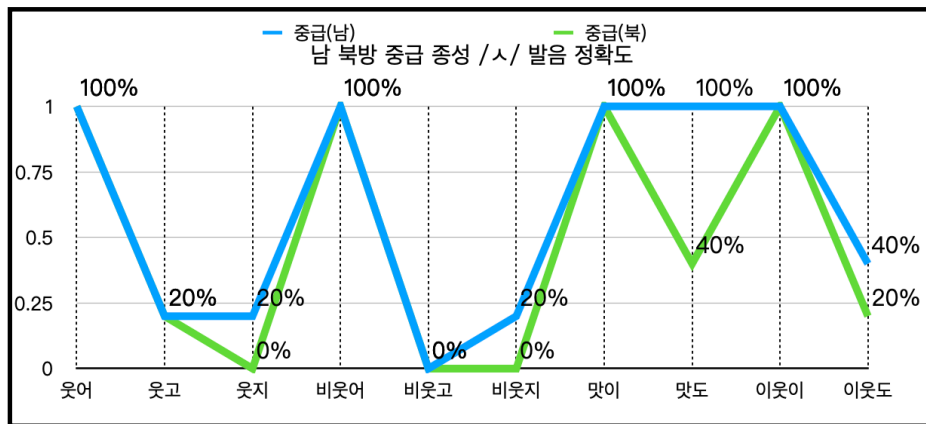
와 48%였다.

<그림 14> 남·북방 고급 /ㅅ/종성 정확도



고급 학습자의 발음 중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종성 소리를 누락한 채 발음하는 오류 현상이다. 또한 북방 학습자는 남부 학습자보다 종성을 누락한 채 발음하는 오류가 더 심했다. 실험 내용에 따르면 ‘웃고, 웃지, 이웃도’는 [우도, 우지, 이우도]로 발음했다. 그 중 북방의 한 학습자는 ‘맛도’에 모음 ‘ㅣ’를 첨가해서 [마 시도]로 발음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모음을 첨가하여 발음을 하는 이유는 발음의 경제성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모음을 임의적으로 첨가함으로 인해 발음이 쉬워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음의 오류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림 15> 남·북방 중급 /ㅅ/종성 정확도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북방 학습자들만 기본 단어 ‘맛’의 발음에서 실수를 했다. ‘맛도’는 북방 학습자가 발음 실험 중에 [마도]로 발음했지만, 후행 조사의 단독 발음 연습을 통해 [만또]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단어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문장 내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종성이 누락된 채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중성/ㅅ/에서 주로 누락 현상과 모음 첨가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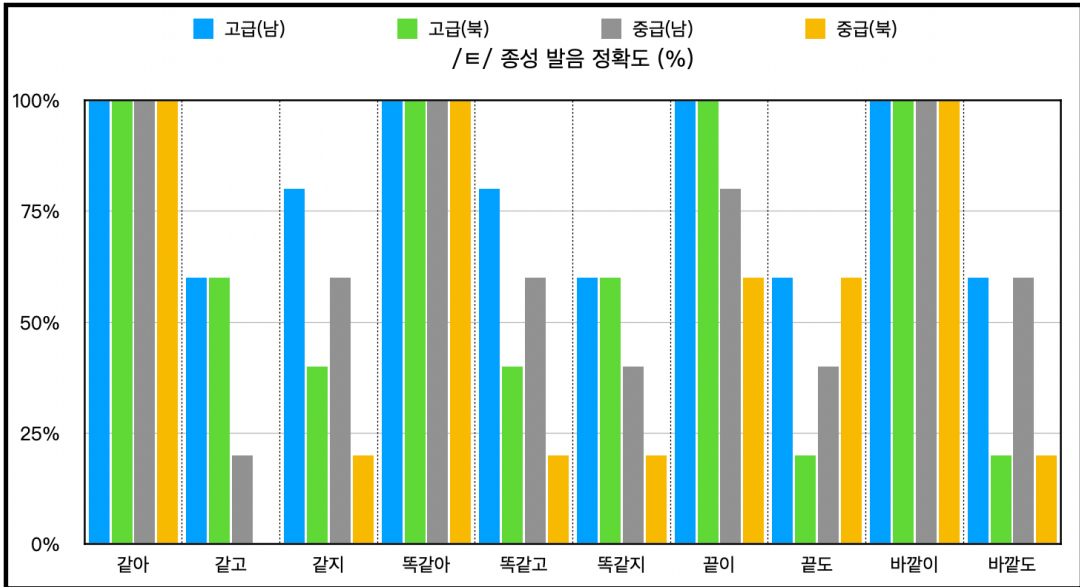
(4) /ㅎ/종성

이 번 실험에서 ‘ㅎ’은 유일한 음운 변동이 있는 종성 소리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 20명 중 10명만 ‘ㅎ’ 종성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했다. 결과를 통해 50%의 중/고급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음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명 학습자는 ‘날아, 날고, 날지’를 [나아, 나코, 나치]로 정확하게 발음한다. 이들 10명 중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 학생은 중급 학생 5명, 고급 학생 5명이며, 남방 학습자는 6명, 북방 학습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명의 학습자는 ‘날아’만 [나아]로 올바르게 발음했고 ‘날고, 날지’를 [나고, 나지]로 잘못 발음했다. 학습자는 어간의 끝소리 ‘ㅎ’이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ㅎ’음운이 예사소리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축약 현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학습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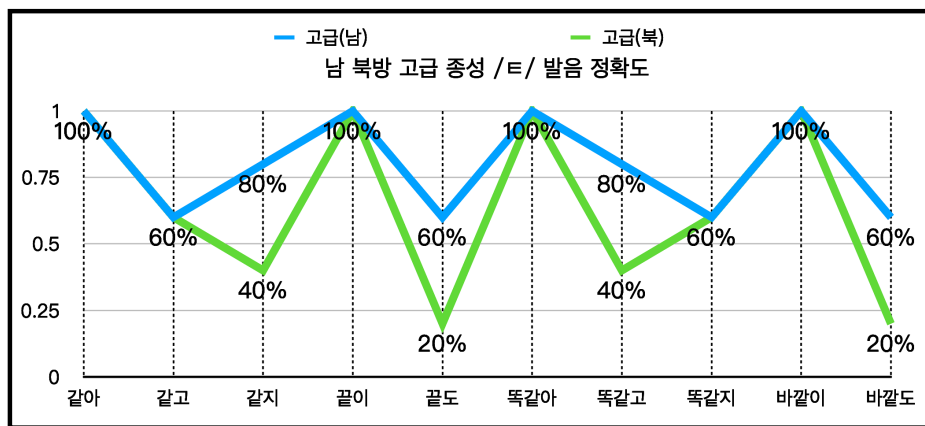
(5) /ㅌ/종성

<그림 16 > /ㅌ/ 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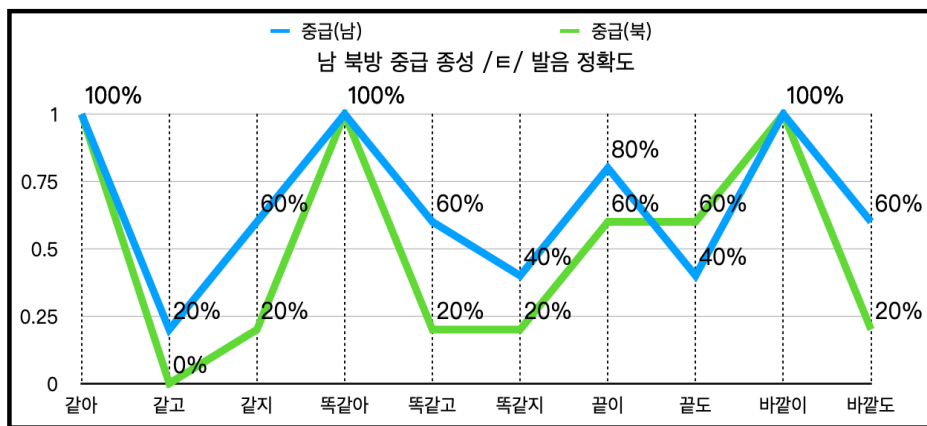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ㅌ’에 후행 모음이 오는 경우 발음 오류율이 낮지만, 자음이 후행하는 경우 오류율이 여전히 높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끝’이다. 고급 학습자들은 /ㅌ/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72%였다. 남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80%, 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64%였다. 중급 학습자들은 /ㅌ/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58%였다. 남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60%, 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50%였다.

<그림 17> 남·북방 고급 /ㅌ/종성 정확도



고급, 중급 학습자는 북방과 남방 학습자 모두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이 실험에서는 ‘ㅌ’ 뒤에 자음이 올 때, ‘ㅌ’을 누락해서 발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고급 학습자들 역시 ‘갈고, 갈지, 끝도, 똑갈고, 똑갈지, 바깸도’가 [가고, 가지, 끄도, 똑가고, 똑가지, 바까도]로 발음했다. 이렇게 ‘ㅌ’을 누락한 채 발음하는 오류는 북방 학습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물론 남방 학습자들이 완벽한 발음을 구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방 학습자들 중 ‘갈도’를 [갑도]로 발음하는 학습자도 한 명 있었다. 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잘못된 발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학습자들은 대표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신의 생각대로 발음을 선택하여 발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 남·북방 중급 /ㅌ/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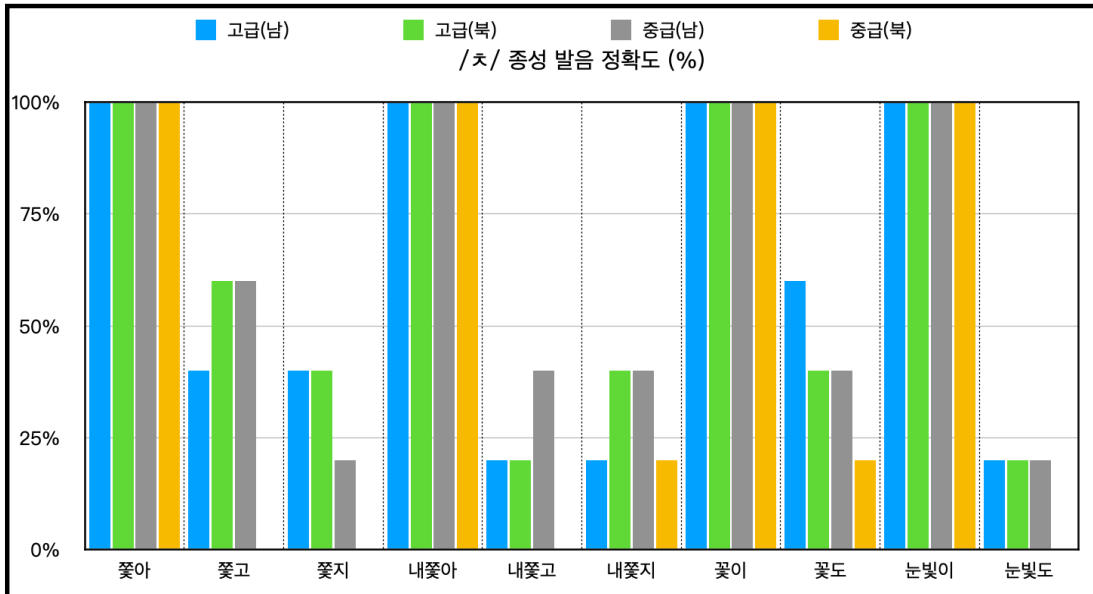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기존 오류 외에도 중급 학습자들은 ‘끝이’에 대한 발음 오류도 보였다. 대치 현상이 나타나는 학습자 중 한 명의 남방 학습자와 한 명의 북방 학습자는 모두 ‘끝이’를 [끄니]로 발음한다. 또 한 명 북방 학습자는 ‘끝이’를 [끄지]로 발음했다. 일부분 학습자들은 실질형태소의 종성소리와 형식 형태소의 첫모음 ‘ㅣ’와 ‘만날 때 ‘ㅌ’이 ‘ㄷ’으로 발음하는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 명의 북방 학습자는 ‘끝도’를 [끄드도]로, 모음 ‘ㅣ’가 첨가된 채로 발음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성/ㅌ/에서 주로 누락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치 현상, 모음 첨가 현상과 음운 오용 현상도 나타났다.

(6) /ㅈ/ 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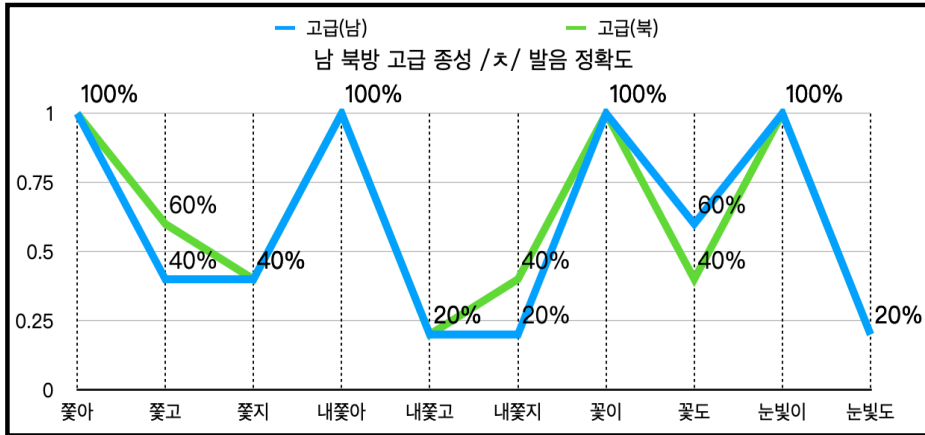
<그림 19> /ㅈ/종성 정확도



본 실험에서 ‘꽃다, 내꽃다’ 2개는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를 선정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두 단어 모두 오류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ㅈ/ 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61%였다. 남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60%, 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62%였다. 중급 학습자들은 /ㅈ/ 종성 발음 평균 정확률이 53%였다. 남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62%, 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은 4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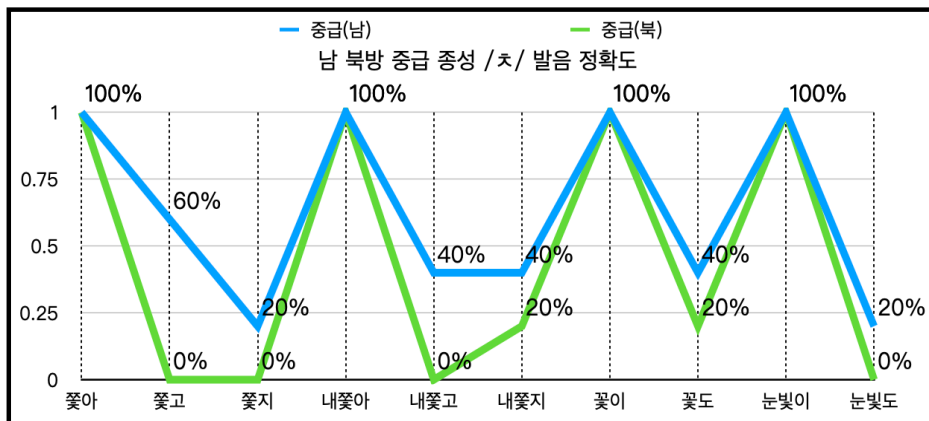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꽃다, 내꽃다, 꽃, 눈빛’ 뒤에 모음이 올 경우 발음에 오류는 없었다. 그러나 ‘꽃다, 내꽃다, 꽃, 눈빛’ 뒤에 자음 ‘ㄱ, ㄷ, ㄷ’이 올 경우 오류율이 높았다. 또 현재 조사에서는 종성 ‘ㅈ’ 발음이 상대적으로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그림 20> 남·북방 고급 /ㅈ/종성 정확도



위의 그림을 보면 남, 북방 학습자들이 종성 ‘ㅈ’ 발음을 할 때 높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꽃고, 꽃지, 내꽃고, 내꽃지, 꽃도, 눈빛도’의 발음을 [쫘고, 쫘지, 내쫘고, 내쫘지, 꼬도, 눈비도]로 발음했다. 또 한 명의 남방 학습자는 ‘꽃고, 꽃지’를 [쫘코, 쫘치]로 발음하였다. 그리고 한 명 북방 학습자는 ‘꽃지’를 [쫘지]로 발음하는 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실험 후 많은 학습자들이 ‘ㅈ’을 종성으로 갖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조사자에게 묻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는 ‘ㅈ’으로 끝나는 종성 단어에 대한 발음이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그림 21> 남·북방 중급 /ㅈ/종성 정확도



중급 학습자 부분에서는 가장 흔한 종성 누락 현상 외에도 축약을 적용하여 발음하거나, 구개음화를 잘못 이해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즉 ‘쫓고, 쫓지’를 [쫓코, 쫓치]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중급에서도 ‘쫓지’의 종성 발음이 있다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올바른 발음인 [쫓찌]가 아닌 [쫓찌]로 발음하는 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또 ‘눈빛도’를 [눈비치도]로 발음하는 현상도 여전했다. 즉 모음 첨가 현상이 중국인 학습자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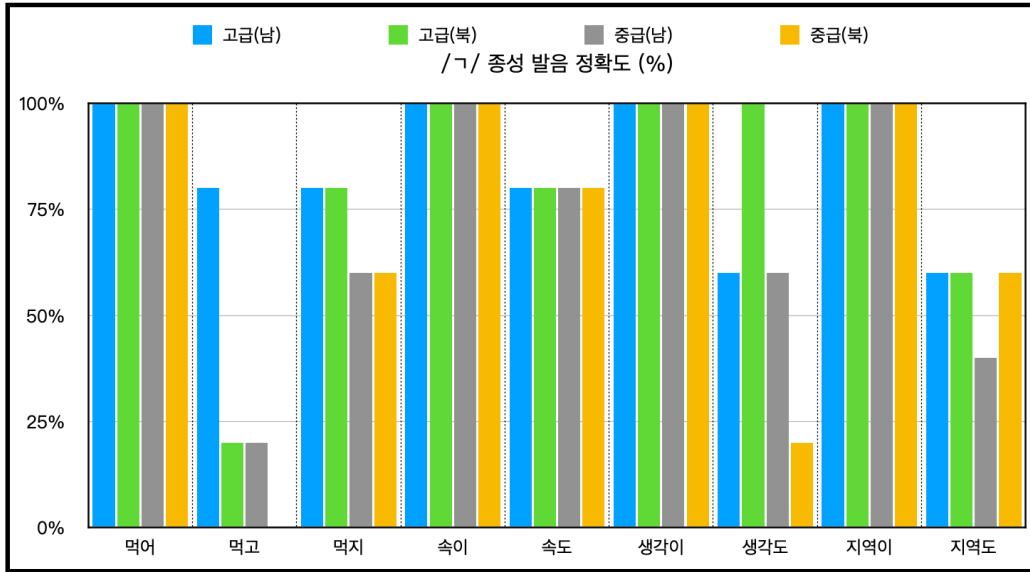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ㄷ, ㅌ, ㅍ, ㅊ’이 종성에 오면 [ㄷ]으로 발음되는데, 학습자들의 인식 오류로 인해 발음 오류의 빈도가 잦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 유형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종성의 대표소리가 불확실하여 종성 누락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종성 누락 현상이다. 둘째는 종성 발음을 이지도 높는데 대표소리 불확실하여 대치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는 매개 모음 첨가 현상이다. 넷째는 음운 규칙의 오용 현상이다.

3.1.4. [ㄱ] 종성

(1) /ㄱ/ 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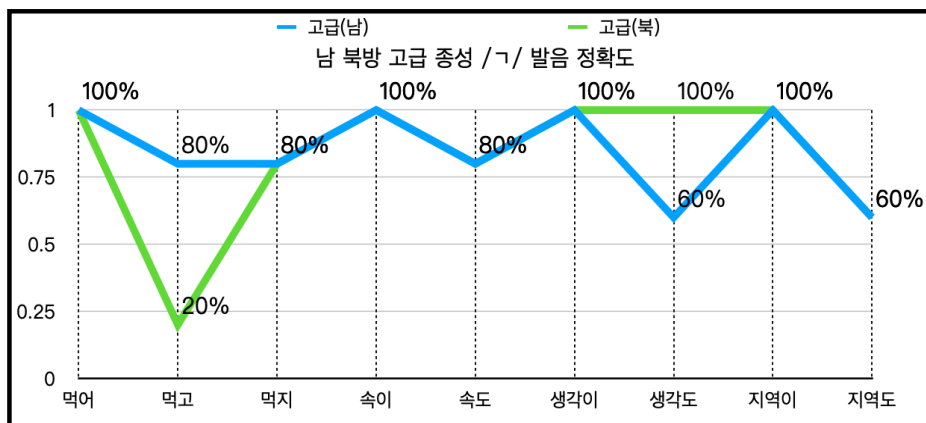
종성에서 ‘ㄱ, ㅋ’이 ‘ㄱ’으로 발음되는데, 의존명사 ‘넋’을 제외하면 ‘ㅋ’종성이 ‘부엌’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ㅋ’종성은 ‘부엌’만을 선택해서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로 중·고급 학습자는 모두 발음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22> /ㄱ/종성 정확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먹고’의 오류율이 가장 높다. 이 경우에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발음 습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종성 누락 현상에 때문에 오류 발음이다. 그리고 ‘ㄱ’종성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에 보면 ‘ㄱ’의 발음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류가 없다. 단순히 학습자들의 발음 습관으로 인한 발음 오류 현상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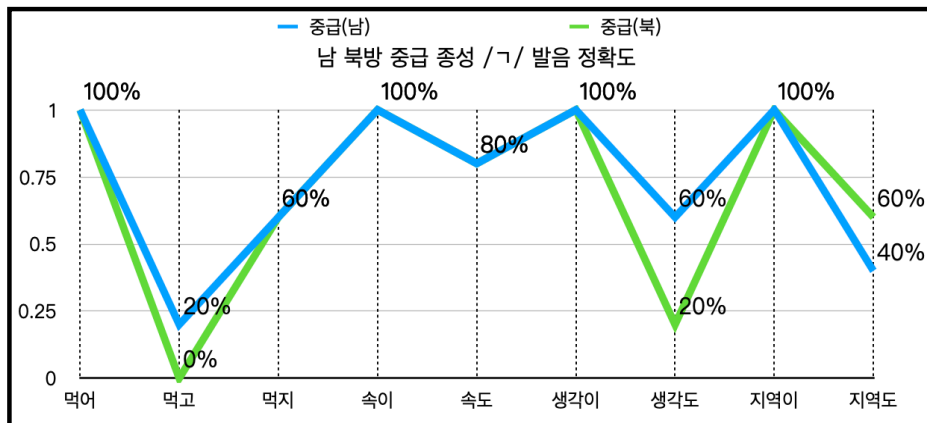
<그림 23> 남·북방 고급 /ㄱ/종성 정확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방 학습자는 북방 학습자보다 발음 정확도가 높다.

특히 ‘먹고, 생각도’는 한 명만 북방 학습자가 정확하게 발음을 했다. 두 단어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발음 오류율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먹어, 먹고’의 경우 ‘먹어’와 ‘먹고’를 강조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글을 쓸 때만 문법에 따라 이해에서 제대로 변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발음 단계에서 ‘먹어’와 ‘먹고’라는 두 단어의 발음이 헷갈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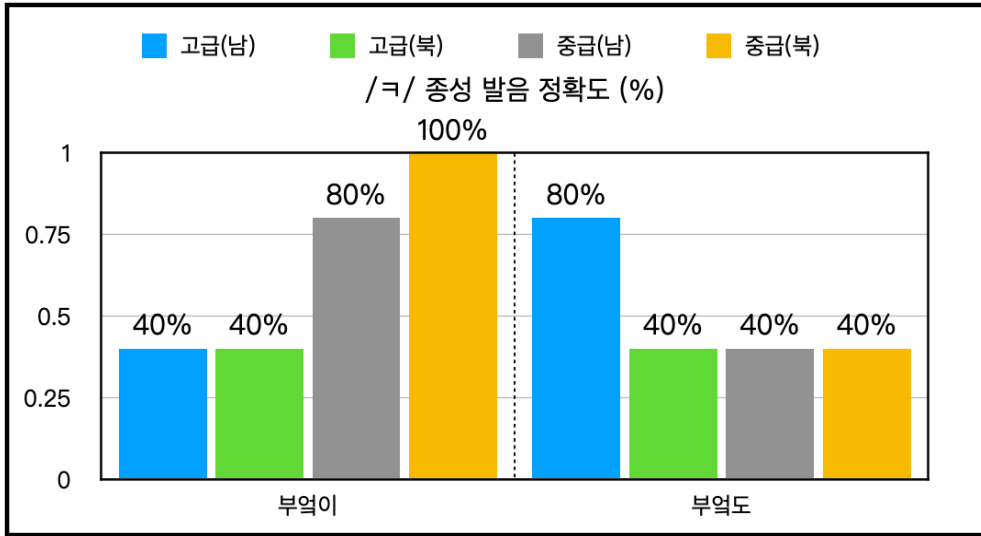
<그림 24> 남·북방 중급 /ㄱ/종성 정확도



위의 그림을 보면 중급 학습자의 발음 정확도가 고급 학습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먹고, 생각도’가 잘못 발음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종성 ‘ㄱ’에 익숙한 정도에 비하면 오류율이 높다. 종음 ‘ㄱ’은 [기]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대표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오류율이 매우 높다면, 이는 학습자는 발음 과정에서 완전히 무의식 상태가 되어 종성 소리를 탈락해서 발음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물론 북방 학습자가 남방 학습자보다 발음 오류율이 더 높은 것을 표에서도 알 수 있다.

(2) /ㅋ/종성

<그림 25> /ㄱ/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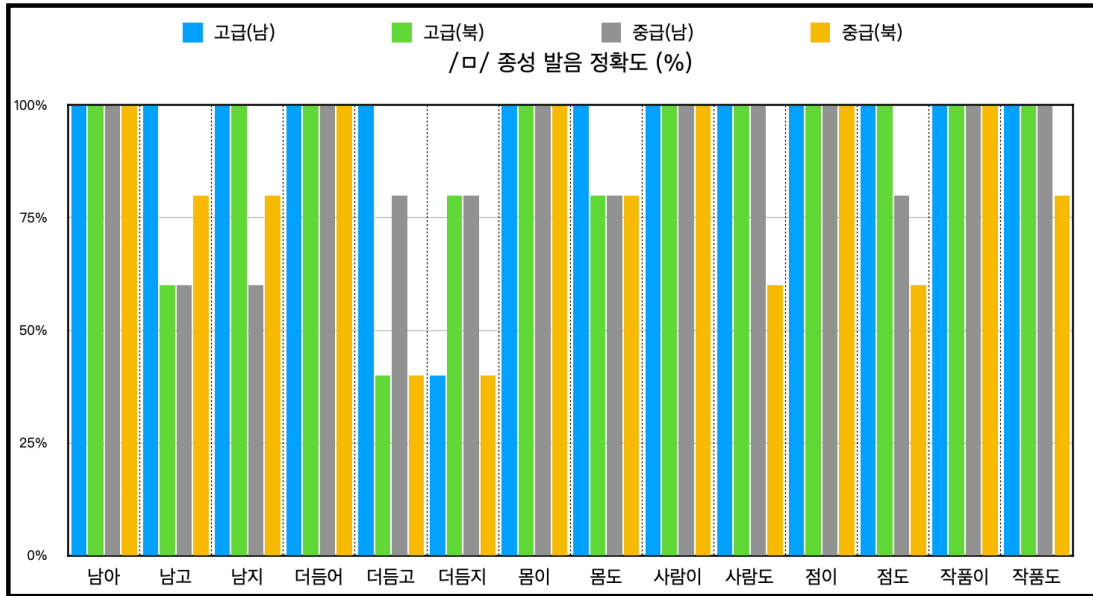


‘ㄱ’의 종성은 한 단어만 ‘부역’을 선택한다. ‘부역이’의 정확한 발음은 ‘부어키’이다. 그러나 3명의 고급 남방 학습자는 ‘부역이’를 ‘부어기’로 발음했는데, 이는 ‘ㄱ’의 대표소리 [기]가 ‘ㅣ’와 연결됨을 [기]로 발음한다. 즉 일부 학습자들은 종성과 형식형태소 첫 모음 같이 발생했을 때 종성이 표지의 소리를 발음해야 하는지 대표음을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말이다. 또한 ‘부역이’를 [부어기, 부어치, 부어지]로 발음한 3명의 고급 북방 학습자가 있다. 위에 같은 [부어기] 발음 제외 하면 잘못된 발음의 결과에 따르면 실질형태소 ‘ㄷ, ㅌ’ 끝소리와 형식형태소 첫 모음 ‘ㅣ’만날 때 ‘ㅌ’이 ‘ㄷ’으로 발음하는 구개음화를 ‘ㄱ’으로 잘못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이다. 또 ‘부역도’가 [부어도]로 발음되는 경우, 종성 ‘탈락식’ 잘못 발음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부역이’가 [부어기]로 발음한 학습자는 한 명밖에 없다. 또 중급 학습자의 발음 실험 결과에 보면 구개음화의 오용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종성이 탈락하는 발음 현상이 더 뚜렷하다. 중급 학습자 총 10명 중 6명은 ‘부역도’를 [부어도]로 발음했다. ‘부역이’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학습자는 모두 ‘ㄱ’종성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6명의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종성 누락해서 발음을 하거나 대표소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고 발음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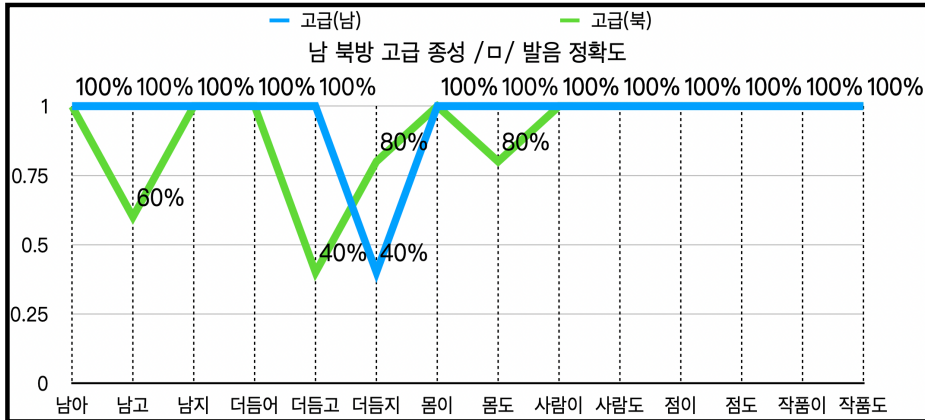
3.1.5. [ㄹ] 중성

<그림 26> /ㄹ/중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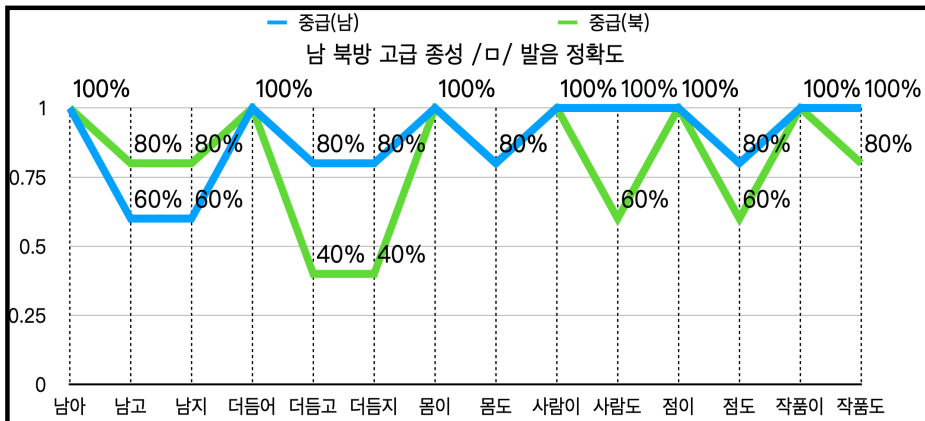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중성 ‘ㄹ’ 발음의 정확률이 높다. 중성 ‘ㄹ’에는 표기와 소리 같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남고, 몸도’가 [나고, 모도]의 잘못된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중성이 누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발음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듬고’가 [더들고]로 발음되는 경우는 아직 유추할 방향이 없다. 그러나 ‘더듬고, 더듬지’는 [더등고, 더등지, 더듬지]로 발음된다. 후속 조사 물어보면 일부 피실험자는 실험 자료의 글자가 너무 작아 실험 과정을 불명확하게 하여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 27> 남·북방 고급 /ㄱ/중성 정확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급 학습자의 실험 결과이며 정확도가 매우 높다. 북방 학습자 중 3명은 ‘더듬고’를 [더등고, 더들고]로 발음했다. 3명의 남방 학습자는 ‘더듬지’를 [더등지, 더듭지]로 발음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다. ‘남고, 더듬고’를 각각 [나마고, 더드므고]로 발음하는 북방 학습자들도 있는데, 이는 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림 28> 남·북방 중급 /ㄱ/중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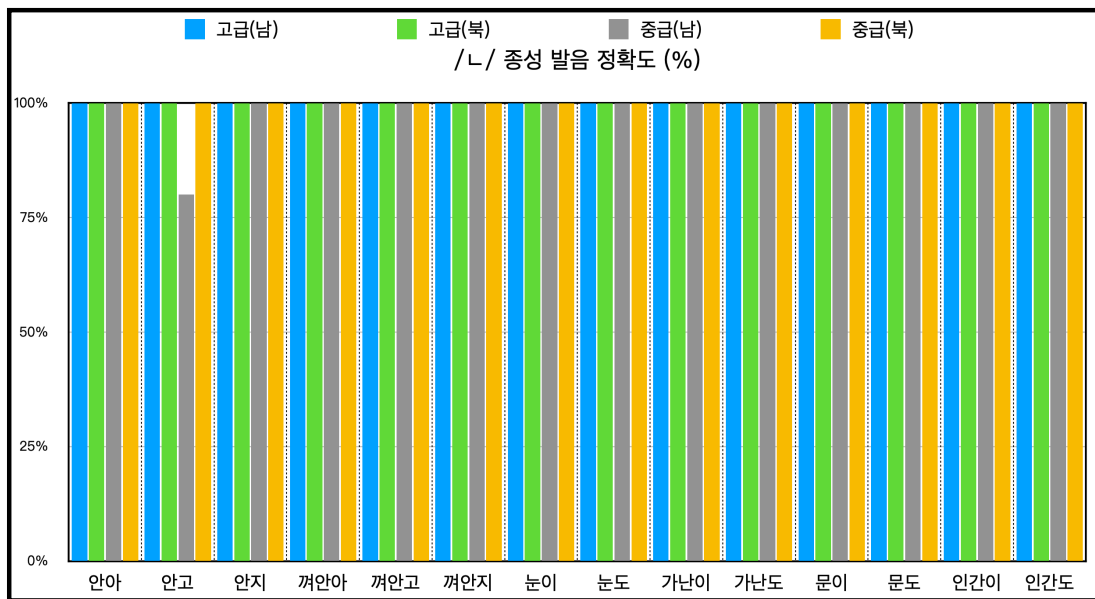
중성이 누락 현상 외에도 중급 학습자들도 모음 첨가 현상이 많다. 예를 들어, ‘남고, 더듬고, 사람도’는 각각 [나마고, 더드므지, 사라므도]로 발음한다. 물론 어미나 조사가 만나면 뒤에서 실질형태소 나타나면 이 현상은 일어난다. 그러나 모

음을 첨가하는 현상은 주로 북방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난다. 학습자 자신의 말을 하는 습관으로 인해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모음이 종성과 함께 붙으면 초성이 되어 발음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지에서 종성 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으로 보인다.

3.1.6. /ㄴ/종성

이 종성 소리는 중국어 한어 병음[n]의 발음과 가장 유사한 소리이다. 즉, 이 종성 소리는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는 다른 종성 소리에 비해 ‘ㄴ’을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9> 남/북방 /ㄴ/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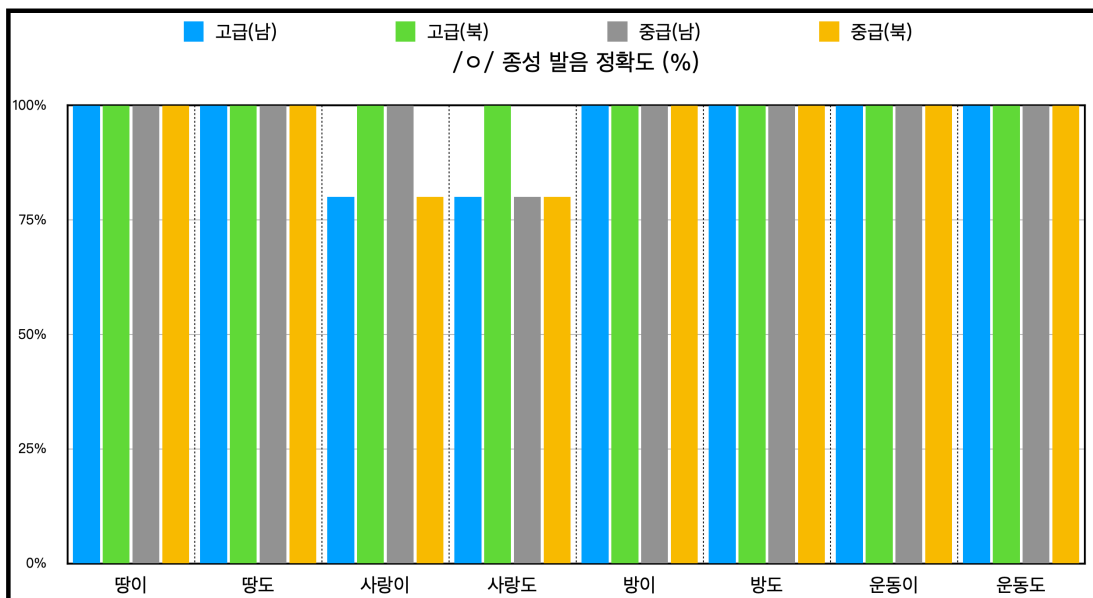
실험 결과에 따르면 ‘ㄴ’종성 발음 오류율이 가장 낮았다. ‘ㄴ’종성은 고급 중급 자든 남방 북방 학습자든 상관없이 발음 오류가 거의 없다. 모국어가 제2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100%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한 학습자는 여전히 ‘안고’를 [암고]로 발음하는 실수를 범했다. 단 한 명의 학습자만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의 이유는 후속 조사에서 추적되었다. 학습

자의 대답은 실험 내용이 너무 많아 잘못 읽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피험자는 중국어 발음 습관으로 인해 쉽게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전에 실험자의 상태를 확인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험의 정확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조사를 수행했다.

3.1.7. /o/종성

위의 ‘ㄴ’종성 외에 ‘ㅇ’종성도 한어 병음[ng]와 유사한 소리이다. 마찬가지로 ‘ㅇ’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쉬운 종성 발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에 실험 결과에 보고 종성 ‘ㅇ’의 정확도 비율은 종성 ‘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 중 학습자들은 ‘사랑이, 사랑도’를 [사랑미, 사랑도, 사람도]로 발음했다. 또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어 방언 발음할 때도 [n], [ng] 구별 혼용되거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도’가 [사란도]로 발음하는 것도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류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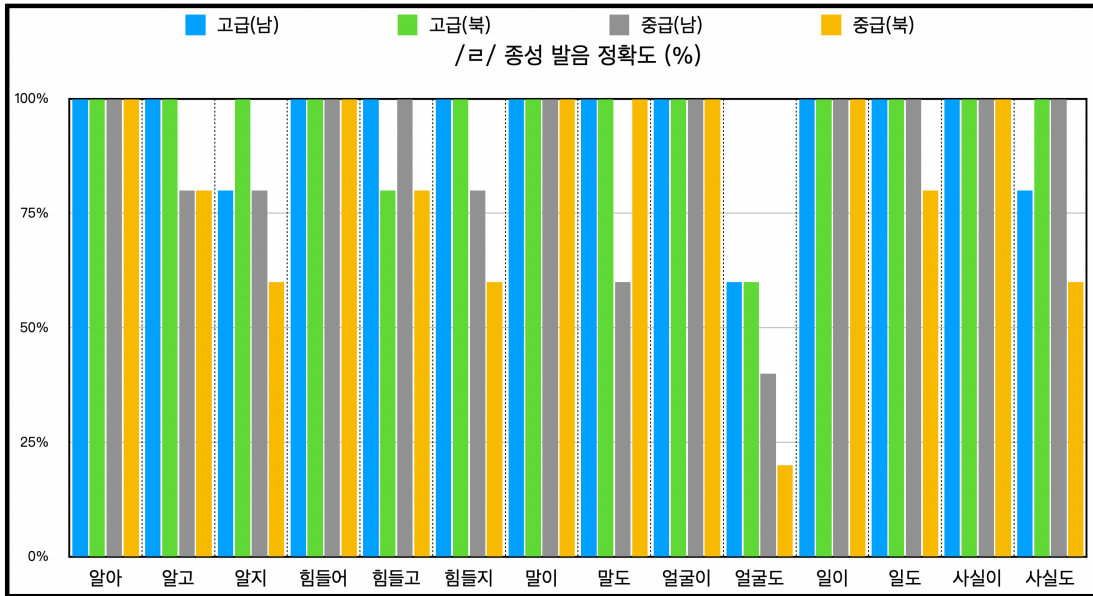
<그림 30> /o/종성 정확도



3.2.8. /ㄹ/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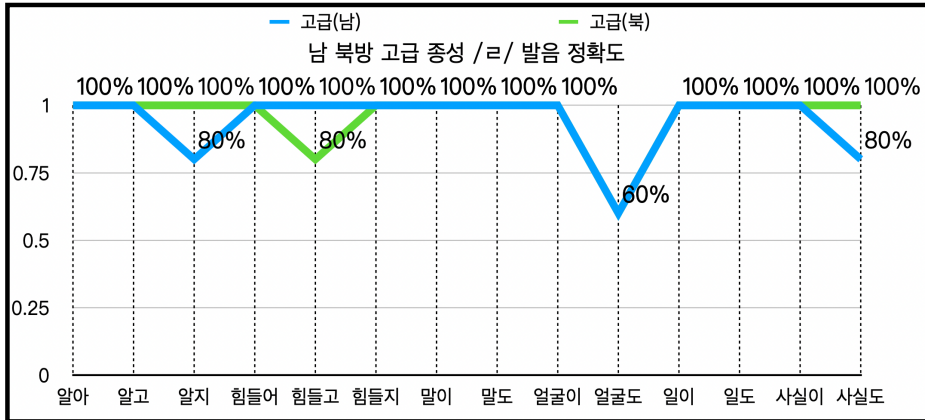
한국어의 ‘ㄹ’종성은 중국어의 열화음(兒化韻)과 비슷하게 들린다. 중국어에서 열화음은 음절 뒤에 ‘r’로 붙어서 발음되지만 쓰임을 때는 별도의 문자이다. 한국어로 하면 한 글자가 아닌 음소이다.

<그림 31> /ㄹ/종성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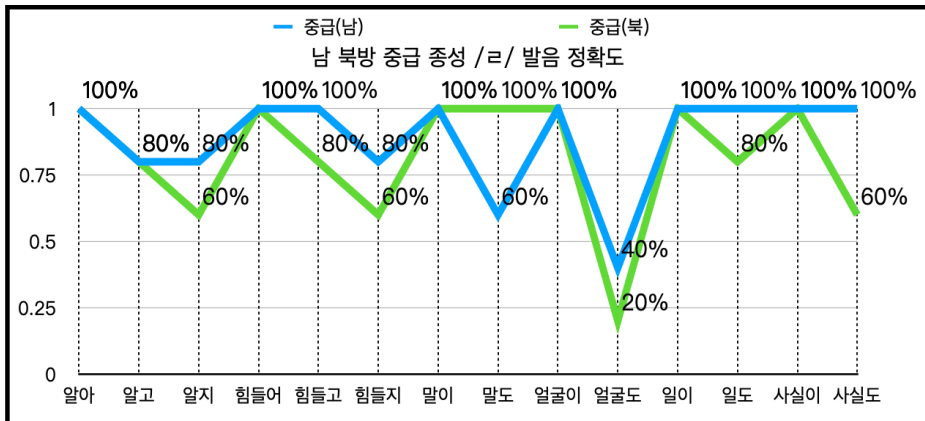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실험 결과 ‘ㄹ’종성 발음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종성은 ‘ㄴ, ㅇ’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7종성 음의 정확도가 높은 비율 중 하나이기도 한다. 그림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단어의 앞뒤 두 번 ‘ㄹ’의 소리를 실행했기 때문에 단일 ‘ㄹ’소리를 발음에 비해 두 번 ‘ㄹ’발음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ㄹ’으로 두 번 실행되는 단어는 발음이 어려워서 발음 오류율이 높다.

<그림 32> 남·북방 고급 /ㄹ/중성 정확도



이 실험에서 고급 남방 학습자는 ‘알지, 힘들고, 얼굴도, 사실도’를 각각 [아지, 힘드고, 얼구도, 사시도]로 발음했다. 고급 북방 학습자는 ‘힘들고, 얼굴도’를 [힘드고, 얼구도]로 발음한다. ‘ㄹ’중성의 발음 실험 과정에서 나머지 중성이 혼용되는 현상은 없었다. 중성이 탈락하는 발음 현상만 있다.

<그림 33> 남·북방 중급 /ㄹ/중성 정확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방과 북방 중급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비율이 <그림 32> 고급 학습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류율이 가장 높은 ‘얼굴도’ ‘이 제외하고 그 중 남방 학습자는 ‘알고, 알지, 힘들지, 말도, 일도, 사실도’를 [아고, 아지, 힘드지, 마도, 이도, 사시도]로 발음해서 오류 나타났고 북방 학습자도

같은 오류 외에 ‘힘들고’를 [힘드고]로 오류가 있다.

3.2 청취 실험 대상 및 방법

3.2.1 청취 실험 대상

청취 실험은 발화 실험에 참여했던 동일한 실험 그룹에서 이루어졌다. 청취 실험은 실험자가 자신이 듣는 것이 실제로 듣는 것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물론 실험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청취 실험하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듣기 단계에서 정확도에 따라 종성 발음의 인지 정도가 판단할 수 있다.

청취 실험이 시작되면, 준비된 녹음이 방송되고 피실험자들은 들은 내용의 정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청취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각 질문을 두 번 읽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녹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문의 내용은 한국인이 녹음하였다. 녹음자인 한국인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발음이 또렷하고 유창한 사람으로 선택한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릴 때부터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말하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비해 중요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듣기 실험이 발음 실험보다 정확도가 더 높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필기시험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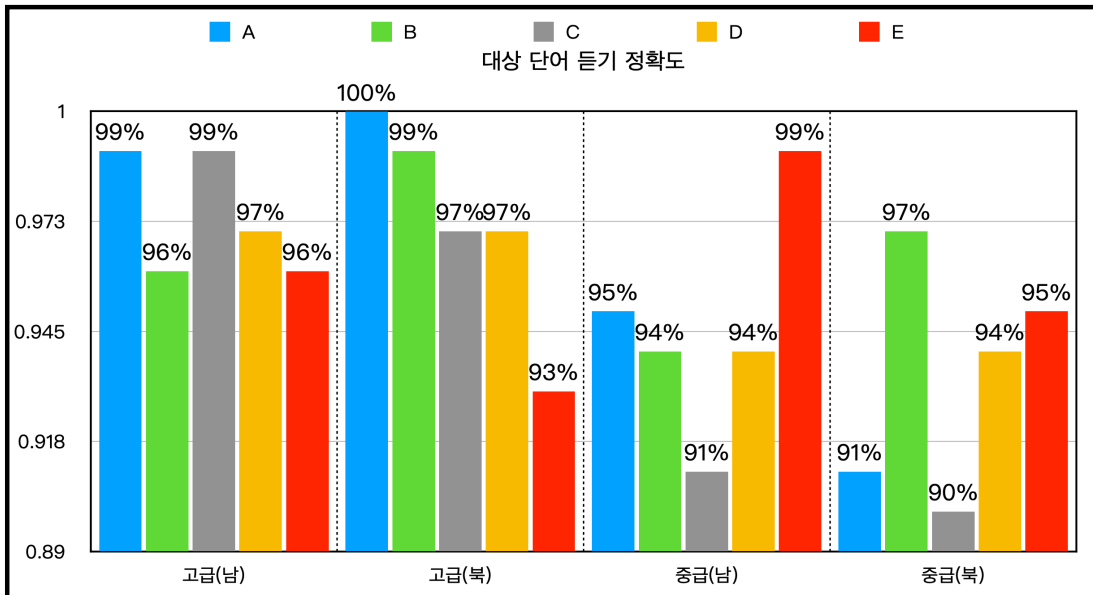
3.2.2. 청취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주로 중국인의 한국어 종성 발음 듣기 습득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종성 발음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의 주요 목적은 학습자가 실제로 종성 발음에 민감한지 밝히는 것이다. 시험 대상자들은 한국어 수준과 출신 지역에 따라 동일한 녹음 내용의 정답을 선택하다.

그리고 틀리게 내용을 기록한다. 이 실험을 통해 남방, 북방 학자들의 한국어 습득에 듣기와 말하기 정확성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중국 학습자의 한국어 듣기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말하기 정확도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화 실험 중, 중급 및 고급 학습자 모두 대상 단어의 발음 정확도는 90% 미만이었다. 하지만 청취 실험의 결과, 20명 대상자들은 모두 90%의 정확도가 도출되었다. 같은 대상 단어가 다른 문장과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듣기에서의 정확한 비율은 발음에서의 정확한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림 34> 남·북방 청취 실험 정확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명의 북방 학습자는 듣기 실험에서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12명의 학습자, 즉, 남방 학습자 7명, 북방 학습자 5명은 정답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률이 90% 이상 학습자는 7명, 남방 학습자 3명, 북방 학습자 4명으로 나타났다. 즉, 20명의 학습자가 듣기 실험에서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실제로 듣기 실험의 정확도가 발음 실험의 정확도보다 높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듣기의 정확도는 실제로 발음의 정확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을 보면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중급 학습자보다 높다는 것

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남방 고급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은 97.4%, 북방 고급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은 97.2%, 남방 중급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은 94.6%, 마지막으로 북방 중급 학습자의 평균 정답률은 93.4%였다.

고급 학습자의 정확도 비율이 높았지만 여전히 오류는 존재했다. 가령, 남방 학습자는 ‘앞도, 집도, 꼬집지, 비웃지, 꾸짖지, 더듬어, 낱지, 밤낮이, 갈아, 비웃고, 꾸짖고, 되짚지’의 실험에서 실수를 했고, 이 중 오류 반복률이 가장 높은 대상 단어는 ‘비웃지’였다. 북방 학습자들은 각각 ‘앞도, 되짚어, 가난이, 집도, 꼬집지, 비웃지, 받아, 안지, 작품도, 밤낮이, 점도, 비웃고, 낱고, 더듬고’까지 실수를 했고, 가장 높은 반복 오류율을 보이는 대상 단어는 ‘앞도, 꼬집지, 밤낮이’였다. 동일한 단어 ‘비웃다’에 다른 어미가 연결될 때 보다, 어미 ‘-지, -고’가 연결되어, ‘비웃지’ 또는 ‘비웃고’가 실현될 때 오류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를 ‘상관 오류’라고 한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동일한 오류 상황이 더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남방 학습자는 ‘집도, 비웃지, 갈지, 비웃고, 되짚지, 낱지’에서 두 번 이상의 오류를 범했다. 북방 학습자도 ‘말이, 앞이, 비웃지, 꾸짖지, 낱아, 되짚지, 낱도’에서 동일한 오류가 여러 번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 중 ‘비웃지’의 빈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중급 듣기 실험에서는 ‘상관 오류’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상 단어 ‘되짚다’는 각각 ‘-어, -지, -고’로 어미와 연결될 때 오류가 발생했다. ‘되짚다’라는 단어는 학습자에게 생소한 단어이고, ‘되짚어, 되짚지, 되짚고’가 ‘되지퍼, 되집지, 되집고’로 발음 오류를 보이는 이유는 들리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대상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듣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어의 종성 부분이 ‘ㅅ’이라는 점이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실험에서 모든 실험자에 대해 오류율이 가장 높은 대상 ‘비웃다’이라는 단어다. ‘비웃다’ 이 단어에는 잘못된 점이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 단어는 낱설고, 두 번째는 단어의 종성 부분이 ‘ㅅ’이며, 결국 오류가 발생한다.

3.3 발화와 청취 오류 유형 분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남·북방 방언권에 따른 한국어 종성의 습득 양상을 고찰한 것으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발화와 청취 실험과 발음 실험 정확도 비교

발화와 청취 실험과 발음 실험 정확도 (%)			
		남방 학습자	북방 학습자
발화 실험	고급	평균 정확도 78%	평균 정확도 73%
	중급	평균 정확도 72%	평균 정확도 65%
청취 실험	고급	평균 정확도 97%	평균 정확도 97%
	중급	평균 정확도 94%	평균 정확도 93%
전체 평균		85%	82%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남방 학습자가 북방 학습자보다 발음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청취 실험에서는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발화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발화 실험에서 남방의 중, 고급 학습자의 종성 발음 정확도는 각각 72%와 78%였다. 북방 중, 급 학습자의 종성 발음의 정확한 비율은 각각 73%와 65%였다. 남방과 북방 학습자의 정확한 비율에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 입성의 유무가 한국어의 종성 발음습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오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에 따라 오류 유형은 아래의 5가지로 살필 수 있었다.

첫째, 누락 현상이다. 누락 현상의 경우 2종류가 나타났다. 하나는 종성의 대표 소리가 불확실하여 종성 누락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로 ‘ㅍ, ㅈ, ㅊ, ㅎ, ㅌ, ㄷ, ㅋ’ 등이 종성에 올 때 발생하였다. 이 자음들이 종성에 나타날 경우 실험자들은 종성에서의 대표소리를 기억하지 못해 발음 오류가 발생하였다. 가령, ‘높고, 앞도’는 [노고, 아도]로 발음하고, ‘맞고, 낮도’는 [마고, 나도]로, ‘웃고, 맞도’는 [우고, 마도]로, ‘갈고, 끝도’는 [가고, 끄도]로 발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

고 ‘쫓고, 밤낮도’의 경우는 종성을 누락시켜서 [쫓고, 밤나도]로 발음하였다. ‘ㅋ’의 경우도 대표소리를 알지 못해 종성을 탈락시켜 발음하려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물론 종성 발음의 불확실한 인지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생소함으로 듣기 실험에서는 자신의 발음 습관에 따라 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는 무의식적으로 종성 발음을 누락하는 현상이다. 주로 ‘ㅂ, ㄷ, ㄱ, ㅁ, ㄴ’ 종성에서 발생하였다. 또 하나는 학습자가 종성을 무의식적으로 누락시켜 발음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문장을 읽을 때는 종성을 누락시키지만,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정확히 발음하였다. 예를 들어, ‘ㅂ’종성에서 ‘법도’, ‘모습도’, ‘방법도’를 발음할 때 똑같이 종성의 ‘ㅂ’을 누락해서 [버도], [모스도], [방버도]와 같이 발음하였다. ‘ㄷ’ 종성에서는 ‘받고, 받지, 혈뜨고, 혈뜨지’를 모두 다 [바고, 바지, 혈뜨고, 혈뜨지]로 종성 소리를 누락해서 발음하였다. ‘ㄱ’ 종성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먹고’가 [머고]로 발음되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먹어’는 [머거]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어 연음화의 경우 대체로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ㅁ’ 종성에서 ‘남고, 더듬고, 사람도’의 경우 각각 [나르고, 더드므지, 사라르도]와 같이 발음하였는데 이는 매개 모음을 활용하여 발음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ㄴ’ 종성에서 ‘알지, 힘들고, 얼굴도, 사실도’의 경우 각각 [아지, 힘드고, 얼구도, 사시도]로 발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실험자들은 종성 발음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음함으로써 오류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종성을 알고 있음에도 평파열음화에 의한 대표소리를 잘못 대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ㅍ, ㅈ, ㅌ, ㅊ, ㄷ, ㅁ, ㅇ’ 등의 종성에서 나타났으며, 위의 현상과 달리 이 유형은 대표소리에 관한 잘못된 기억으로 발음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종성 ‘ㅍ, ㅈ’과 ‘ㅌ, ㅊ’의 ‘무릎’을 [무름]으로, ‘맞지’를 [막지]로, ‘끝도’를 [끈도]로, ‘쫓지’를 [쪽지]로 발음하였고, 그리고 형식형태소에 이어질 때 대표소리로 발음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ㅍ’을 종성으로 갖고 있는 단어 중, ‘무릎이’의 경우 [무르비]로 발음하였다. 또한 구개음화의 잘못된 발화 양상도 있었는데, 가령 ‘밤낮이’를 [밤나치]로 발음하는 현상이 그러하다. 그리고 ‘ㄷ’ 종성 ‘혈뜨고, 혈뜨지’는 [혈뜨고,

헐뜯지]로 발음하기도 하였다. ‘ㄹ’ 종성의 ‘더듬고, 더듬지’는 [더등고/ 더들고, 더등지/ 더듭지]로 발음하였으며, ‘ㅇ’ 종성의 ‘사랑이, 사랑도’는 [사랑미, 사랑도/ 사랑도]로 발음하였다.

셋째, 매개 모음 첨가 현상이다. 주로 /ㅂ/, /ㅍ/, /ㄹ/, /ㅈ/종성에서 나온다. 즉, 단어의 종성을 빼내어 모음 ‘ㅣ, ㅡ, ㅏ’와 연결하고, 종성이 초성이 된 후에 실제 형태소 가진 어미나 조사 함께 발음한다. 예를 들어 ‘ㅂ’ 종성은 ‘잡고’가 [자브고], ‘ㄹ’ 종성에 ‘남고’가 [나마고], ‘ㅈ’ 종성에 ‘눈빛도’가 [눈비치도]로 발음하는 것이다.

넷째, 음운 규칙의 오용 현상이다. 학습자는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전혀 몰라 발음에서 실수를 한다.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ㅎ’와 ‘ㅌ’ 종성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학습들은 ‘ㅎ’이 ‘ㄱ, ㄷ, ㅂ, ㅈ’과 만나면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로 발음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끝이’를 [끄지]로 발음하는 모습을 통해 실질형태소 끝소리와 형식형태소 첫 모음 ‘ㅣ’가 만날 때 ‘ㅌ’이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주로 듣기 실험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되짚다’, ‘비웃다’ 등의 단어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령, 듣기 원문에서 ‘잘못은 되짚지 않아?’라는 문장에서, 학습자는 [되집지]를 대표소리로 선정했다. 특히 [되집지]의 경우 ‘되집지’ 선택지를 고르고 [비웃고]에 대해서는 ‘비웃고’나 ‘비우고’를 골랐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들리는 대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북방과 남방 출신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습득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인 보통화에는 입성인 [p, t, k] 발음이 사라졌지만, 고대 중국어에서는 입성 발음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중국 남방 방언에서는 입성 발음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 학습자들이 출신 지역별로 습득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여 한국어 종성 발음의 습득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역별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별로도 구분하여 이들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북방 출신 학습자는 남방 출신 학습자보다 종성 발음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고대 중국어의 입성 발음이 현대에도 남아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한국어 종성 발음습득 양상이 다르며, 발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발화 오류 양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평파열음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표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이는 종성음을 누락시키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주로 종성이 /ㅍ/, /ㅈ/, /ㅊ/, /ㅎ/, /ㅌ/, /ㄷ/, /ㄱ/인 경우에 발생했다. 또 종성의 발음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종성을 누락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종성이 /ㅂ/, /ㄷ/, /ㄱ/, /ㄴ/, /ㅇ/, /ㄹ/인 경우에 발생했다. 둘째, 평파열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종성을 다른 음으로 대치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종성이 /ㅍ/, /ㅈ/, /ㅊ/, /ㅎ/, /ㄷ/, /ㄴ/, /ㅇ/인 경우에 발생했다. 셋째, 어려운 종성 발음을 회피하려는 의식에 따른 매개 모음 첨가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종성이 /ㅂ/, /ㅍ/, /ㄴ/, /ㅎ/인 경우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른 발음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발음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ㅎ/과 /ㅌ/의 종성 발음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실험자의 청취 실험에서 한국어 발음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이다. 먼저 듣기 실험에서는 대체로 오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서는 듣기에서 오류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익숙한 단어의 경우 암기 등에 의해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경우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해서 발화음을 인식해야 해서 비교적 많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에서 틀린 발음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학습지도자의 꼼꼼한 지도와 평파열음화에 대한 교육과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성 발음이 사라진 보통화를 사용하는 중국 북방 출신의 학습자들에게는 남방 출신 학습자들보다 파열음[ㄱ, ㄷ, ㅂ] 발음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그리고 능력별로 구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종성 발화 양상을 살피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른 지역별, 혹은 능력별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중국의 남방과 북방을 구분하여 학습자들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인 학습자의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된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 내 논저

- 고 비(2012), 「중국 청도방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국립국어원.
- 권성미(2012), 「L1-L2 간 발음 규칙의 상이성에 따른 한국어 종성비음 습득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63-90.
- 김경희(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발음 오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석(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특성 연구: 속달도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 백경미(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운규칙 적용 양상 연구」,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117-151.
- 노금송(200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란효하(2007), 「방언권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엔연(202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종성비음 연쇄 음절에 대한 발음 오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연희(2002),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 예(2018), 「남·북방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 종성 습득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영환, 金成蘭(2019), 「구술 발화를 통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

- 상 연구], 『언문논집』80, 중앙어문학회, 387-415.
- 배제석(1998), 「입성자의(入聲字) 운미(韻尾) -p, -t, -k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38, 한국중국학회.
- 백경미(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 발화에 나타난 자음 대치 오류 연구-초성과 종성 환경을 중심으로」, 『언어학』 26, 대한언어학회, 179-197.
- 백소영(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지도방법」, 『외국어교육연구』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77-88.
- 소원군(2010), 「중국어 방언권에 따른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관화방언, 오방언, 월방언권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경애(2009), 「中國語圈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 發音 教育 方案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봉영(2014),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종성 발음과 음운 이론 교육의 필요성」,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아사(2009), 「『老乞大』諺解本 중의 中古 入聲字 韻尾 ‘ㄹ’에 대하여」, 『중국학연구』 50, 중국학연구회.
- 양순임(2005), 「한국어교육학회 50주년 기념 특집 : 일반 논문 ; 한국어 음절 종성의 발음 교육」, 『국어교육』117, 한국어교육학회, 493-519.
- 오 발(2009), 「중국 방언권에 따른 한국어 음소의 발음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 민(2013), 「한중 입성 자음의 언어 지리적 분포와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금륜(2017), 「한국 한자어 음절 구성과 중국 한어 병음의 연관성 연구 : 중성과 종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원(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희(2005), 「한자음 설내 입성 운미의 유음화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2, 언어과학회, 285-302.

- 장 월(202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월방언과 오방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포오일나(2022), 「중국어권 한국어 화자들의 종성발음 연구: 중국 표준어 화자와 민남어 화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수영(2016), 「중국인 월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받침 발음 교육 연구: 월방언 운미와 한국어 종성 대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LIU CHANG(2020), 「한국어 겹받침 발음에 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양상 연구-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한국 외 논저

- , <认识入声字>掌握窍门 其实并不难.
- 中國新聞網 : <岭南文化的宝典 : 粤语>.
- 李荣(1985), ‘官话方言的分区’, <方言> 1985年第一期, pp2-5.
- (1990), 中国社会科学院及澳大利亚人文科学院, 中国语言地图集, 香港朗文.
- 林焘(1995), 理嘉王, <语音学教程>.
- 曹志耘(2002年1月), <南部吴语语音研究>, 商务印书馆.
- 曹志耘(2002年1月), <赣语> ‘汉语七大方言区之一’.
- 侯精一(2002), <现代汉语方言概论>.
- 张志敏(2005), 东北官话的分区(稿)<CNKI >.
- 贺巍(2005), <方言·第二期·中原官话分区(稿)>, 中国社会科学院研究所.
- 王志纲(2005), <第三种生存王志纲社会经济观察录>四川美术出版社.
- 彭建国(2006), <湘语音韵历史层次研究>, 湖南大学出版社.
- 张树铮(2007), 胶辽官话的分区(稿), <方言>.
- 陈泽泓(2008), 广府文化, 广东人民出版社.

- 朱晓农(2010), <语音学>, 商务印书馆.
- 陈元靓(2011), <事林广记>, 江苏人民出版社.
- 顾会田(2011), 论朝峰片汉语方言的形成与归属,<赤峰学院学报 (汉文哲学社会科学版)> 2011年第八期, 202-203.
- 高文平(2015), 语言之界, 重庆大学出版社.
- 陈恩泉, 黄永坚(2017), 双语双方言用语论集<双语双方言>专辑
- Lado,R(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M].Ann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rder,S(1967(5),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J].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
- sNemser,W.(1971(9)),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J].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 Selinker,L.(1972), <Interlanguage> [J].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 Widdowson,H(1979), <Exploring in Applied Linguistic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C(1980), <Contrastive Analysis> [M].Harlow Essex: Longman.
- Brown,H.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M].Englewocliffs,NJ:Prentice Hall,Inc.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learners' pronunciation of Korean final consonants by region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Kai-Man Ho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final pronunciation according to the dialect of Chinese learners. To this end, what effect did the dialect of the mother tongue have on the acquisition of Korean final pronunciation between learners in the southern region of China where the pronunciation of 'entering tone' ([p], [t], [k]) exists and learners in the northern region where there is no entering tone I would like to see if it affects. For example, 'ㅏ' is pronounced [sip] in Korean, [shi] in Putonghua, [sap] in Cantonese, a southern dialect, and [sip] in Southern Fujian Dialect. If you listen to these pronunciations, you can see that the pronunciation of Southern Fujian Dialect and Korean is very similar, but there are differences from the Putonghua.

The experimental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in Korea and ordinary Chinese living in Korea. Among the 20 test subjects, 10 each were divided into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and 10 learners from each region were divided into 5 each according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pronunciation of Korean final consonants by native language dialect of Chinese learners, the results were extracted in two forms: speech level and listening level. Vocabulary selected for the final pronunciation investigation includes all seven consonants of Korean, namely [ㄱ, ㄴ, ㄷ, ㄹ, ㅁ, ㅂ, ㅇ]. It was difficult to accurately discriminate the subject's pronunciation through simple word

reading, so after selecting the test subject word, a sentence was created using i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peech experiment and the listening experiment, the following 5 types of errors appeared.

First, it is an omission phenomenon. In the case of the omission phenomenon, two types appeared. One is that the final consonant is uncertain, leading to the final consonant of missing the final consonant. It mainly occurred when ‘ㅍ, ㅈ, ㅊ, ㅎ, ㅌ, ㄷ, ㄹ’, etc. came to the final consonant. When these consonants appeared in the final consonant, the experimenters could not remember the representative sound in the final consonant, resulting in pronunciation errors.

Another is the phenomenon of unconsciously missing the final pronunciation. It mainly occurred in the final consonants ‘ㅅ, ㄴ, ㄱ, ㅁ, ㄹ’. Another is that the learner unconsciously omits the final consonant and pronounces it, resulting in an error. However, when the learner read the sentence, the final consonant was omitted, but when pronounced alone, it was pronounced correctly.

Second, even though the final consonant was known, there was a phenomenon in which the representative sound was erroneously replaced by flat-breaking consonants. It mainly appeared in final consonants such as ‘ㅍ, ㅈ, ㅊ, ㅎ, ㅌ, ㄷ, ㄹ, ㅁ, ㅂ, ㅅ’, and unlike the above phenomenon, this type is an error in pronunciation due to an incorrect memory of the representative sound.

Third, it is the phenomenon of mediating vowel addition. It mainly comes from /ㅁ/, /ㅍ/, /ㅊ/, /ㅌ/ neutral. In other words, the final consonant of the word is extracted and connected with the vowels ‘ㅣ, ㅡ, ㅏ’, and after the final consonant becomes the initial consonant, the final morpheme or postposition with the actual morpheme is pronounced together.

Fourth, there is a misuse of phonological rules. Learners make mistakes in pronunciation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phonological rules of Korean at a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ㅎ’ and ‘ㅌ’ specie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Fifth, it appeared mainly in listening experiments. For example, learners made errors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 meaning of words such as '되짚다' and '비웃다'.

<부 록>

설문조사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읽어 주세요. (한 문장씩 두 번 읽어 주세요.)		
1	집을 저당 잡아 투자하다.	
2	손목을 잡고 말리다.	
3	난 너를 잡지 못하고	
4	저 빌딩은 제일 높아.	
5	하늘이 높고 맑아요.	
6	이 작품은 품격이 높지 않다	
7	돈을 받아 가세요.	
8	전화를 받고 가요.	
9	그녀는 나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	
10	성을 나가 맞아 싸우다.	
11	주사를 맞고 약을 먹다.	
12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이다.	
13	웃기는 왜 웃어?	
14	그녀 웃고 있어.	
15	웃지 마세요.	
16	형수는 아기를 낳아 몸조리가 필요하다.	
17	이 팀이 이변을 낳고 우승을 하였다.	
18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19	바보 같아.	
20	이름이 같고 성이 다르다.	
21	정서와 용모가 같지 않다.	
22	공리를 쫓아 구하지 않다.	
23	쫓고 쫓기며 장난치다.	
24	궁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마라.	
25	음식을 다 먹어 버리다.	
26	먹어 보니 정말 맛있어.	
27	그는 밥을 먹지 않고 갔다.	
28	비석이 아직 남아 있다.	
29	오늘을 한 편의 시로 남고 싶다.	
30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31	안아줄게요!	
32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있다.	
33	너를 안지 못하다.	
34	너의 마음을 나는 잘 알아.	
35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다.	
36	그리 잘 알지 못한다.	
37	그녀를 한 번 꼬집어 주었다.	
38	사회의 풍속을 꼬집고 있다.	

39	나를 꼬집지 마세요!	
40	갔다가 되짚어 돌아 왔다.	
41	지팡이를 되짚고 길을 내려가다.	
42	잘못은 되짚지 않아?	
43	민호를 헐뜯었다.	
44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헐뜯고 다녔다.	
45	뒤에서 남을 헐뜯지 마라.	
46	정말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	
47	사장은 부하직원을 엄하게 꾸짖고 있다.	
48	동생은 꾸짖지 않으세요?	
49	얘기할 테니 절대 비웃지 마세요.	
50	그를 한 번도 비웃어 본 적이 없다.	
51	한 바탕 비웃고 풍자하다.	
52	어디든지 똑같아.	
53	두 형제는 용모도 똑같고 성질도 같다.	
54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	
55	고양이와 개를 내쫓아 주세요.	
56	점점 잠을 내쫓고 있다.	
57	그 개는 내쫓지 마라.	
58	왜 말 더듬어?	
59	그는 무엇을 찾는지 자루 속을 더듬고 있었다.	
60	요즘 말을 왜 이렇게 더듬지?	
61	곰은 그를 꼭 껴안아 그를 목 졸라 죽였다.	
62	아기를 꼭 껴안고 자다.	
63	전혀 껴안지 않아요.	
64	먹기가 힘들어.	
65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워.	
66	이 일은 그리 힘들지 않다.	
67	네 집이 어디니?	
68	집도 절도 없다.	
69	앞이 들린 짧은 겹옷.	
70	자기 앞도 못 가리다	
71	요리는 정말 맛이 없다.	
72	값도 싸고 맛도 좋다	
73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74	밑도 끝도 없는 소리.	
75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다.	
76	비가 나면 꽃도 진다.	
77	그는 속이 너무 좁다.	
78	내 속도 몰라.	
79	몸이 크다.	
80	몸도 재산도 다 없어지다.	
81	이렇게 작은 글자는 눈이 피곤하다.	
82	눈도 깜빡이지 않다	
83	비가 와서 땅이 질다.	
84	송곳 박을 땅도 없다.	
85	말이 없니?	
86	말도 하지 않고 이별하다.	

87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다.	
88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야.	
89	이 바지는 무릎이 헤어졌다.	
90	나 지금 무릎도 많이 나갔어.	
91	일을 할 때는 밤낮이 따로 없다.	
92	밤낮도 없이 일하더라.	
93	그들은 독립가옥에 살아서 이웃이 없다.	
94	이웃도 착한 사람이다.	
95	눈이 와서 바깥이 많이 추워졌어요.	
96	바깥도 예쁘다.	
97	그 눈빛이 약간 풀어져 있다.	
98	사람이 눈빛도 안 쫓아.	
99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100	아무 생각도 없다.	
101	부역이 조용했다.	
102	이 방은 부역도 없다.	
103	사람이 모두 다 왔다.	
104	그 사람도 선생님이세요.	
105	가난이 극에 달하다.	
106	생활이 가난도 공부해야 한다.	
107	사랑이 변덕스럽다.	
108	사랑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109	얼굴이 빨갱다.	
110	너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잖아.	
111	나라마다 인사하는 법이 다르다.	
112	이 일이 네게 도움이 될 법도 하다.	
113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114	그렇게 되면 편집 점도 없어요.	
115	문이 잠겨 버렸네.	
116	안짜 문도 달다.	
117	방이 좁아도 있을 건 다 있다.	
118	그래서 지금 방도 되게 더러워.	
119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	
120	무능해서 아무 일도 못하다.	
121	좋은 방법이 없다.	
122	아무 수단도 방법도 통하지 않다.	
123	각 지역이 서로 다르다.	
124	지역도 제한이 있다.	
125	그 작품이 그의 역작이다.	
126	예술 전시회에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127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학식	
128	인간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129	못하는 운동이 없다.	
130	민호는 운동도 잘하지만 요리도 잘한다.	
131	명성과 사실이 부합되다.	
132	사실도 믿지 못할 것이다.	
133	그는 일이 바빠서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134	더구나 지금은 낮도 아니고 아주 이른 아침이다.	

틀리는 문장 빈칸을 알맞은 것은 고르세요.
(한 문장 두 번씩 읽어주세요)

B	1	[] 피고 있다.
		A 꼬치 B 꽃이 C 꽃이
	2	이 집은 [] 거실과 분리되어 있다.
		A 부엌이 B 부어기 C 부어키
	3	어째 오늘은 [] 없니?
		A 마리 B 말이 C 말리
	4	[] 비다.
		A 방이 B 바이 C 바니
	5	두 형제는 용모도 [] 성질도 같다.
		A 똑가고 B 똑같고 C 또가고
	6	그는 자기 [] 못 가리는 사람이다.
		A 압도 B 앞도 C 아도
	7	지나온 길을 [] 보다.
		A 되지퍼 B 되짚어 C 되지버
	8	년 뒤 [] 싶어?
		A 머고 B 먹고 C 멩고
	9	어린애를 [] 올리다.
		A 아나 B 안아 C 안나
	10	눈발이 더욱 굵어져 [] 잘 보이지 않는다.
		A 아피 B 압이 C 앞이
	11	그녀는 [] 도 말하지도 않고 있었다.
		A 운지 B 웃지 C 우지
	12	[] 너무 이쁘게 잘해요.
		A 말도 B 마도 C 망도
	13	[] 많이 추우니 나가지 말라고 해라.
		A 바까치 B 바깥이 C 바깥이
	14	이 방 안에 [] 없다.
		A 부엌도 B 부엌도 C 부어도
	15	남을 뒤에서 [] 말아야 한다.
		A 헐뜯지 B 헐뜨지 C 허뜨지
	16	아무 [] 하지 않다.
		A 이도 B 일도 C 잉도
	17	[] 예쁘다.
		A 바깥도 B 바깥도 C 바까도
	18	나는 [] 서 잠을 잤다.
		A 힘들어 B 힘드러 C 힘들러

19	한도 [] 없이 계속하다. A 끈도 B 뜨도 C 끌도
20	한 [] 남지 않다. A 아도 B 알도 C 양도
21	하늘과 [] 끝이 없다. A 땅이 B 따이 C 땅니
22	[] 소 아들이라. A 가나니 B 가난이 C 가나이
23	송곳 박을 [] 없다. A 땅도 B 따도 C 당도
24	네가 보면 금방 []. A 아라 B 알아 C 알라
25	[] 절도 없다. A 지도 B 집도 C 짚도
26	그대 [] 있네요. A 울고 B 웃고 C 우고
27	[] 없이 일하더라. A 밤낮도 B 밤날도 C 밤나도
28	값도 싸고 [] 좋다. A 마도 B 말도 C 맛도
29	아직 [] 못하겠구나. A 아지 B 알지 C 양지
30	나를 [] 마세요! A 꼬지지 B 꼬집지 C 꼬짚지
31	왜 밥 안 []? A 머거 B 먹어 C 먹거
32	고향이 [] 난다. A 생가이 B 생가기 C 생각이
33	한 가지 [] 생각해 내지 못하다. A 방법도 B 방버도 C 바벗도
34	대학생활은 곧 [] 난다. A 끄치 B 끝이 C 끄이
35	[] 비단 가난. A 가난도 B 가나도 C 가남도
36	그는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 [] 마라. A 비우지 B 비울지 C 비웃지
37	사람을 알고 [] 알지만 그 마음은 모른다. A 얼구도 B 얼굴도 C 어굴도

	38	완전히 []는 않다. A 똑같지 B 똑간지 C 똑가지
	39	아이가 넘어져서 [] 깨어졌다. A 무르피 B 무릎이 C 무릎피
	40	잘도 []주는 사람. A 우서 B 웃어 C우어
	41	오빠가 사람을 보는 [] 있다. A 누니 B 눈이 C 눈니
	42	[]제한이 있다. A 지역도 B 지여도 C 직여도
	43	인간 [] 않다. A 같지 B 가지 C 같이
	44	[] 굉장히 많아요. A 방도 B 바도 C 반도
	45	나 지금 [] 많이 나갔어. A 으름도 B 무릎도 C 무르도
	46	좋은 [] 많이 있다. A 저미 B점이 C 점미
	47	뒤에서 남을 [] 마라. A 혈뜨지 B 혈뜬지 C 혈뜻지
	48	그들 둘은 꼭 [] 있다. A 껴안고 B 껴아고 C 껴양고
	49	[] 작년보다 낫다. A 모미 B 몸이 C 몸미
	50	나의 손을 []주던 그대. A 자바 B 잡아 C 잡바
	51	[] 모두 갖춰져 있다. A 사시리 B 사실이 C 사실리
	52	애를 [] 마라. A 꾸짖지 B 꾸지지 C 꾸짖지
	53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다. A 내쫓았 B 내쫓았 C 내쫓찻
	54	눈썹도 []다 있다. A 누도 B눈도 C 농도
	55	철수는 [] 못한다. A 운동도 B 운도도 C 운돈도
	56	치료를 [] 않니? A 바지 B 받지 C 반지

57	남자는 다 []요. A 똑가타 B 똑갈아 C 똑갈타
58	후회가 []아쉬웠다. A 나고 B 남고 C 낭고
59	너는 항상 나의 잘못을 []낸다. A 꼬지버 B 꼬집어 C 꼬집버
60	그 []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A 사람도 B 사라도 C 사라도
61	혼자 일을 [] 말고 나눠서 해라. A 꺼아지 B 꺼안지 C 꺼양지
62	그를 한 차례 []. A 꾸지저 B 꾸짓어 C 꾸짓저
63	상장과 꽃다발을 가슴에 [] 사진을 찍었다. A 아고 B 안고 C 암고
64	교실에 [] 남아 있다. A 사라미 B 사람이 C 사람미
65	따뜻한 거 []? A 맞아 B 마자 C 맞자
66	아이의 머리광을 [] 주다. A 바다 B 받다 C 받아
67	무서워 발발대는 아이를 꼭 [] 주었다. A 꺼아나 B 꺼안아 C 꺼안나
68	[] 쫓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다. A 쫓고 B 쯤고 C 쯤고
69	내 [] 몰라. A 소도 B 속도 C 소독
70	두려워서 널 [] 못 했던 나. A 안지 B 아지 C 양지
71	[]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A 이우도 B 이웃도 C 이운도
72	[]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A 사랑도 B 사라도 C 사람도
73	[]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A 운동이 B 운도이 C 운돈이
74	남녀 비율이 [] 않다. A 마지 B 맞지 C 맞지
75	이곳은 물가가 [] 음식이 비싸다. A 노파 B 높아 C 높파

76	그는 서울 지리를 잘 [] 있다. A 아고 B 알고 C 앙고
77	왜 말 []? A 더드머 B 더듬머 C 더듬어
78	말끝을 [] 말고 . A 자지 B 잡지 C 잠지
79	그녀는 아이를 [] 못하였다. A 낳지 B 낳치 C 나치
80	서로 손을 [] 함께 나아가다. A 자고 B 잡고 C 잠고
81	요즘 말을 왜 이렇게 []? A 더드지 B 더듬지 C 더등지
82	그 사람을 [] 마라. A 쫓지 B 쫓지 C 쫓지
83	[] 잘 달았어? A 문도 B 무도 C 묵도
84	밖에 나갈 [] 있어? A 방바비 B 방법이 C 방법비
85	이 [] 표절 혐의가 있다. A 작푸도 B 작품도 C 작풍도
86	시대의 흐름을 [] 나아가다. A 쫓차 B 쫓아 C 쫓차
87	이 요리는 [] 좀 없다 . A 마시 B 맛이 C 맛시
88	이 일이 네게 도움이 될 [] 하다. A 버도 B 법도 C 범도
89	[] 땀투성이다. A 얼구리 B 얼굴리 C 얼굴이
90	사람이 [] 안 줬어. A 눈빛도 B 눈비도 C 눈빈도
91	열정이 그다지 [] 않다. A 높지 B 노지 C 눅지
92	그녀를 한 번 [] 주었다. A 꼬지버 B 꼬집어 C 꼬집버
93	그는 고기를 전혀 [] 않는다. A 머지 B 먹지 C 멍지
94	그놈 참 [] 좋군. A 눈비치 B 눈빛이 C 눈빛치

95	그는 [] 됐어. A 인간이 B 인가니 C 인간니
96	[] 바뀌었어요. A 밤나지 B 밤낮지 C 밤낮이
97	업무가 [] 않다고는 할 수 없으나. A 힘들지 B 힘드지 C 힘든지
98	산은 [] 길은 멀다. A 노고 B 높고 C 놓고
99	[] 재산도 다 없어지다. A 모도 B 몸도 C 몽도
100	[]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A 인간도 B 인가도 C 인강도
101	[] 믿지 못할 것이다. A 사시도 B 사실도 C 사심도
102	체했던 [] 시원하게 내려갔다. A 소기 B 속이 C 속기
103	사람을 직장에서 [] 있다. A 내쫓고 B 내쫓고 C 내쫓고
104	가장 [] 아픈 것이 후회라는 것을요. A 힘들고 B 힘드고 C 힘등고
105	그 사람은 [] 마라. A 내쫓지 B 내쫓지 C 내쫓지
106	등 뒤에서 남을 [] 욕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A 헐뜨고 B 헐뜨고 C 헐뜨고
107	자식을 [] 기르다. A 나아 B 낳아 C 난아
108	이 떡볶이는 쌀로 만든 것 []. A 가타 B 갈아 C 갈타
109	천 [] 아니고 만점. A 점도 B 저도 C 정도
110	그런 [] 어딴어? A 버비 B 법이 C 법비
111	공이 네트에 [] 떨어졌다. A 맞고 B 마고 C 망고
112	날씨가 추워지면 [] 진다. A 꽃도 B 꼬도 C 꼰도
113	지금쯤 누군가가 반드시 [] 있을 것이다 A 비웃고 B 비우고 C 비울고

	114	배달하는 [] 너무 넓어서 힘이 드는구나. A 지여기 B 지역이 C 지역기
	115	[] 시원하게 끝났다. A 이리 B 일리 C 일이
	116	[] 사라지다. A 모스비 B 모습이 C 모습비
	117	좋은 [] 좋은 방법도 없다. A 생각도 B 생가도 C 생강도
	118	사람들이 서로 [] 싸우는데, A 꾸짖고 B 꾸지고 C 꾸질고
	119	우리는 서로 나이도 [] 해서 반말을 쓰기로 했다. A 가고 B 같고 C 같고
	120	두 [] 흡사해 보인다. A 작무미 B 작품이 C 작풍도
	121	사람의 [] 마찬가지로야. A 모습도 B 모스도 C 모습도
	122	새댁은 쌍둥이를 [] 정말 기뻐하였다. A 나고 B 낭고 C 냥고
	123	이 [] 이상해. A 사라미 B 사람이 C 사람미
	124	지팡이를 [] 길을 내려가다. A 되짚고 B 되지고 C 되집고
	125	잘못은 [] 않아? A 되지지 B 되짚지 C 되집지
	126	[]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A 사랑이 B 사라이 C 사란이
	127	이 [] 옛날 집보다 더 넓으냐? A 집이 B 집비 C 지비
	128	새로운 [] 한 집 이사 왔다. A 이우시 B 이웃이 C 이웃시
	129	[] 고장나서 열 수가 없다. A 문니 B 문이 C 무니
	130	노인은 어느새 옛 기억을 [] 있었다. A 더드고 B 더듬고 C 더등고
	131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 다. A 비웃었 B 비우셨 C 비웃셨
	132	명령을 [] 가다. A 받고 B 바고 C 반고

	133	그는 일이 바빠서 밤과 [] 따로 없었다.
		A 나지 B 낮이 C 낮지
	134	더구나 지금은 [] 아니고 아주 이른 아침이다.
		A 낮도 B 나도 C 날도

※ 다음은 한국어 종성 발음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1.您在學習韓國語的時候會特別關注到終聲(收音)發音嗎?

1. 한국어를 배울 때 종성발음에 특별히 신경을 쓰나요?

A非常关注 B关注过 C仅知道 D不关注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아니다

2.您認為韓國語終聲(收音)發音難嗎?

2. 한국어 종성발음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A 很难 B难 C一般 D简单 E不关注

A 매우 어렵다 B 어렵다 C 보통이다 D 아니다

3.您認為在初學韓國語階段需要加強對終聲(收音)發音的學習嗎?

3. 한국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종성발음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非常需要 B需要 C一般 D不需要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아니다

4. 韓國語7終聲([ㅂ],[ㄷ],[ㄱ],[ㅁ],[ㄴ],[ㅇ],[ㄹ])發音您是否全部能夠準確發音?

4. 한국어 7종성([ㅂ], [ㄷ], [ㄱ], [ㅁ], [ㄴ], [ㅇ], [ㄹ])을 모두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까?

A非常可以(7个) B可以(5-6个) C一般(4个) D不可以(4个以下)

A 매우 그렇다(7개) B 그렇다(5-6개) C 보통이다(4개) D 못하다(4개이하)

5. 並且了解ㅂ/ㅍ在終聲發音是都是[ㅂ], ㄷ/ㅈ/ㅊ/ㅎ/ㅌ/ㅍ的終聲發音是[ㄷ], ㄱ/ㅋ的終聲發音是[ㄱ], 其餘終聲只代表自己ㅁ[ㅁ], ㄴ[ㄴ], ㅇ[ㅇ], ㄹ[ㄹ].

5. 그리고 ㅂ/ㅍ은 [ㅂ]으로, ㄷ/ㅈ/ㅊ/ㅎ/ㅌ/ㅍ은 [ㄷ]으로, ㄱ/ㅋ은 [ㄱ]으로, 나머지는 ㅁ은 [ㅁ]으로, ㄴ은[ㄴ]으로, ㅇ은[ㅇ]으로, ㄹ은[ㄹ]으로 발음 하는 것을 알

고 있었습니까?

A非常了解 (14个) B了解 (10-12个) C一般 (7-10个) D 不了解 (7个以下) E完全不了解 (4个以下)

A 매우 그렇다(14개) B 그렇다(10-12개) C 보통이다(7-10개) D 아니다(7개 이하) E 매우 아니다(4개 이하).

6. 您认为导致您对准确的终声发音产生影响的因素是什么 ?

6. 종성 발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学习过但是忘记了 B教师并未教授 C教师教授时自己并未在意 D 其他因素 :

A 배웠지만 잊었다 B 교사는 가르치지 않았다 C 선생님은 가르칠 때 신경을 쓰지 않았다 D 기타:

7. 您认为终声发音的不准确会影响到日常沟通吗 ?

7. 부정확한 종성 발음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非常影响 B影响 C一般 D不影响 E不沟通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아니다 E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8. 对终声发音学习您认为重要嘛 ?

8. 종성 발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重要, 原因 :

不重要, 原因 :

感谢您的配合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